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한국과 몽골의 무역증대 방안에
관한 연구

濟州大學校 大學院

貿易學科

칼리운

2021年 2月



한국과 몽골의 무역증대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rade expansion measures between Korea and
Mongolia




지도교수 김희철

칼 리 운

이 논문을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2월

칼리운의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홍 지성 
위 원 허윤석 
위 원 김희철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0년 12월

A Study on Trade expansion measures between Korea and
Mongolia

ENKH AMGALAN KHALIUN
(Supervised by professor Hee-cheol Kim)

Submit this dissertation as a master's degree dissertation

2020 .12 .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Hee-cheol Kim, Prof. of Trade
.....
.....
.....

(Name and signature)

.....
Date

Department of Trad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방법과 논문의 구성.....	3
제2장 한국과 몽골의 무역 및 투자현황.....	5
제1절 몽골의 무역현황.....	5
1. 몽골의 무역현황.....	5
2. 몽골의 년도별 무역현황.....	7
3. 몽골의 국가별 무역현황.....	9
4. 몽골의 품목별 무역현황.....	16
제2절 한국과 몽골간의 무역현황 및 투자현황.....	19
1. 한국과 몽골간의 년도별 무역현황.....	19
2. 한국과 몽골간의 품목별 무역현황.....	21
3. 한국과 몽골의 투자현황.....	26
제3절 선행연구.....	31
제3장 한국과 몽골의 무역경쟁력 비교분석.....	34
제1절 경쟁력분석에 대한 이론적 고찰.....	34
1. 비교우위론.....	34
제2절 현시비교우위(RCA)지수.....	36
1. 현시비교우위지수.....	43
2. 실증분석.....	47
제3절 시장별비교우위(MCA)지수.....	49
1. 시장별우위지수.....	49
2. 실증분석.....	53
제4장 한국과 몽골간의 무역증대 방안.....	54

제1절 한국과 몽골간 무역 발전의 문제점.....	54
제2절 한국과 몽골의 무역증대 방안.....	57
제5장 결론.....	61
참고문헌.....	63
ABSTRACT.....	66

표 차례

<표 2-1> 몽골 경제 전망.....	6
<표 2-2> 몽골의 수출입 추이.....	8
<표 2-3> 몽골의 주요 수출국(2010~2014년).....	10
<표 2-4> 몽골의 주요 수출국(2015~2019년).....	12
<표 2-5> 몽골의 주요 수입국(2010~2014년).....	14
<표 2-6> 몽골의 주요 수입국(2015~2019년).....	15
<표 2-7> 몽골의 주요 수출 품목별.....	17
<표 2-8> 몽골의 주요 수입 품목별.....	18
<표 2-9> 한-몽 양국 간의 연도별 무역 수출입지표(2010~2020년).....	20
<표 2-10> 한국의 대몽골 10대 수출 품목(2016,2017년).....	22
<표 2-11> 한국의 대몽골 10대 수출 품목(2018,2019년).....	23
<표 2-12> 한국의 대몽골 10대 수입 품목(2016,2017년).....	24
<표 2-13> 한국의 대몽골 10대 수입 품목(2018,2019년).....	24
<표 2-14> 최근 9년간 대몽골 외국인 투자 동향.....	26
<표 2-15> 한국의 대몽골 직접투자 현황.....	27
<표 2-16> 한국의 대몽골 업종별 투자현황.....	29
<표 3-1> 한국의 10대 수출입 품목(2019년).....	38
<표 3-2> 몽골의 10대 수출입 품목(2019년).....	39
<표 3-3> 분석대상 품목.....	40
<표 3-4> RCA함수 변수 정리.....	43
<표 3-5> 한국의 대세계 RCA지수(2019년).....	44
<표 3-6> 몽골의 대세계 RCA지수(2019년).....	45
<표 3-7> 한국과 몽골의 RCA지수 분석 결과 비교.....	46
<표 3-8> 한국의 대몽골 MCA지수(2019년).....	50
<표 3-9> 몽골의 대한국 MCA지수(2019년).....	51
<표 3-10> 한국과 몽골의 MCA지수 분석 결과 비교.....	52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세계 국가들 간 대외무역, 경제협력 및 문화 교류,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 등을 현대 시대의 특징인 세계화를 추진시키는 주로 힘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들은 경제 관계를 더욱 활발하며 세계와 지역적 경제 블록화에 통합하고,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는 무역협상들을 설립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성 높은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세계 경제의 발전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1세기 이러한 특징인 세계화, 경제 세계화의 발전으로 세계 각국 간의 글로벌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거침없이 펼쳐지고 있는 이러한 경제 질서 속에서 개발도상국들은 선진 경제와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지역 내 경제연계 강화를 통해 경제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며 또한 이를 통해 불합리한 글로벌 경제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다.

몽골은 경제체제전환 초기의 위기 시기를 성공적으로 건너왔으며 점차 비교적 정착된 경제 성장을 보이고, 대외무역, 경제적 협력 관계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세계 및 각 지역 경제 블록화에 참여, 중진과 선진국 간 협력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역 경제협력에 깊게 들어가서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키고 또는 몽골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개발하여 산업발전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 지하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협력 당사국의 사정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이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 높은 나라와 협력을 맺을 필요가 있다.

몽골은 1990년 경제 체제 이후로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하였으며 1997년에 세계 무역협정에 가입하였다.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 두 큰 나라 사이에 위치하며, 해양진출로가 없고 제조업 활성화 미비로 인해 해외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대외무역 수출은 가공하지 않은 원재료와 천연자원을 수출하며, 전체 수출의 90%이상을 중국에만 수출한다¹⁾. 수입 측면에서 전기, 기름이나 생활용품의 대부

1) 몽골통계청 (2019).

분을 수입하며,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하는 수입이 총수입의 60%이상을 차지한다.

몽골의 경우 천연자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 관계가 너무 높음으로 수출입 구조의 취약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다. 이런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 관계를 낮추기 위해서는 세계 여러 나라와의 교류가 필수이고 한국으로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과 몽골 관계는 1990년 3월 수교한 이래 30년이 지났다. 지금까지 양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차원에서 협력을 지속해서 확대해 왔다. 몽골과 한국 관계는 “21세기를 향한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1999)를 거쳐 “선린우호 협력을 위한 동반자 관계”(2006)로 변화되었으며, 2011년 이래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²⁾. 그런데도 몽골과 한국의 경제협력수준은 양국 간의 정치 및 사회, 문화 분야의 협력 수준과 비교하면 아직 미약한 수준이라 볼 수 있다. 몽골과 한국의 경제협력 발전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은 양국 간 역사적 관계 바탕, 양국의 지리적 가까운 위치,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무역량, 인적이동, 문화 교류 등에 연관성 있음을 말하는 것은 옳다. 양국간 경제협력강화는 한국의 경우 자원의 개발과 확보 차원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시베리아 지역 및 중국 간의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 몽골의 전략적 가치가 있어 향후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몽골 간의 무역협력이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몽골의 무역환경 및 수출입제도 현황을 분석하여 양국의 무역협력 상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양국 간 무역협력의 확대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주몽골한국대사관, 2016.

제2절 연구방법과 논문의 구성

국제경쟁력으로서 수출경쟁력은 측정 주체 및 목적, 시점, 시장, 비교 대상에 따라 측정지표와 방법이 다양해질 수 있다. 이처럼 국제경쟁력의 측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할 수 있고 한편으로 제약요인이 많으므로 여러 가지 지표를 동시에 파악하여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고찰에서 살펴보았던 측정지표 중에서 사후적 관점의 무역 성과가 반영된 현시 비교우위(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와 시장별 비교우위(MCA; Market comparative Advantage)를 계산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현시비교우위(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³⁾는 언급한 바와 같이 사후적 무역 통계를 통하여 수출경쟁력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국제경쟁력 지수로 세간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Balassa, 1965). RCA지수는 일국의 특정 수출품이 글로벌 국제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국제경쟁력을 지니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현시비교우위(RCA)지수는 특정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나타내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수로써 특정 제품을 어느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수출하고 있다면 이것은 수출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근거할 수 있다. 따라서 RCA지수는 해당 제품의 수출 비중이 국제동향 보다 상회하면 자국 제품이 여타국보다 비교우위 측면에서 국제경쟁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 분석으로 한·몽 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할 경우 양국이 수출입할 수 있는 제품을 예측할 수 있다. 한국과 몽골의 주요 수출품의 국제경쟁력에 대해 분석하기 위하여 이용한 기본 데이터는 몽골통계청 또는 한국무역협회와 UN Comtrade⁴⁾에서 제공하고 있는 품목의 수출입금액 데이터 HS코드⁵⁾ 4단위 품목이다.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2019년 기준으로 한국과 몽골 각각 대세계에 10대 대표적인 수출품목을 수집하였다. 또는 한국 대몽골 ,그리고 몽골

3) Balassa, B. (1965) Trade Liberalisation and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4) UN 세계 무역량 통계정보.

5) 상품에 대한 분류를 국제적으로 통일시킨 방식을 말한다. 무역거래에서 상품에 대한 업무 처리를 신속하게 하고 무역통계와 관세부과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원명은 신국제통일 상품명 및 코딩시스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으로 HS제도라고도 한다. 무역통계의 수집과 비교 및 분석을 쉽게 하고 무역에 관한 절차나 자료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게 하며, 상품분류에 사용되는 품목표를 제공한다.

대한국 10대 대표적인 수출품목을 수집하였다. 한국과 몽골의 이들 주요 수출품에 따라 한국 대몽골, 몽골 대한국 수출액, 한·몽 각각의 전 세계에 대한 수출액 데이터를 추가로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 모든 품목별 수출입액 데이터는 UN Comtrade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하고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참조하여 수집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 본 연구배경,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을 서술하였다.

제2장은 한국과 몽골의 무역현황과 양국간의 무역 및 투자현황을 살펴보았다.

제3장은 현시비교우위(RCA)지수와 시장별 비교우위(MCA)지수를 통하여 한국과 몽골의 무역경쟁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제4장은 한국과 몽골 교역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제5장은 결론으로써 본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2장 한국과 몽골의 무역 및 투자현황

제1절 몽골의 무역현황

1. 몽골의 무역현황

몽골은 아시아 북방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7배지만 인구는 330만 명에 불과하여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국가이다. 국토의 대부분이 해발 약 1,500m의 고원지대이며, 남북으로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⁶⁾. 몽골의 경제협력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러시아와 중국에 둘러싸인 내륙국의 지정학적 위치한 국가로서 두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현재도 중국과 러시아는 몽골의 최대 교역국이고 투자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몽골은 1990년 시장경제로 전환한 후에 체제전환 불황으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과 하이퍼인플레이션 등으로 일정 기간 경제침체를 겪었으며 구소련 붕괴와 더불어 상당기간 경제 침체기를 겪었으나 다른 체제전환국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빠르게 안정되었다.

몽골의 주력 산업은 광업, 농업, 목축업, 관광산업 등이다. 광업은 산업 총생산의 2/3를 차지하고, 총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외국인 직접투자도 몽골 광업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또한 몽골은 원자재를 수출하여 경제를 유지하는 국가이다. 몽골의 주요 수출품목의 82% 이상이 석탄, 구리 등의 광물이다. 캐시미어도 6%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수출품 중 하나이다. 반면, 수입은 주로 석유제품, 중장비 부품, 자동차 등을 수입한다. 또한 몽골은 경제가 자원수출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산업도 다양화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중국에 대한 자원 수출 의존도가 높아서 중국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몽골 경제는 1990년대 후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50%로 낮춘 다음 2000년도부터 한 자리수로 안정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성장은 시장개방으로 인한 수입품의 증가로 국내시장이 안정을 되찾음으로써 공급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6)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국가신용도평가리포트; 몽골(2020.03.17.) p.02.

해소되었고 IMF⁷⁾ 등 각종 국제경제기구의 권고에 따른 건설한 총수요관리정책이 성공한 데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몽골은 2017년 경제성장률이 평균 5% 이상을 기록하여 비교적 성공적으로 IMF 관리체제를 이행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올해 몽골 경제는 6%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연초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예상 성장률이 -1%으로 급락하였다.

<표 2-1> 몽골 경제현황

(단위: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실질 GDP 증가률	2.3	1	2	2.5	6.8	5
GDP 대비 총투자	26.2	30.6	34.2	38	43.3	44.9
평균 CPI 상승률	5.9	0.6	4.3	6.4	5.8	6.7
GDP 대비 경상수지	-4.8	-0.7	-0.5	-1	-1.6	-1.3
GDP 대비 재정수지	-1.9	-6.4	-4.9	-8.7	-12.3	-9.5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Country Report Mongolia, 몽골은행(2020년)

2020년 2월 말 기준으로 몽골의 대외무역금액은 21.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인해 대중국 수출입 감소 또는 수출입 통관강화 등 물류차질에 따른 결과이며, 이로써 중앙은행은 몽골의 수출실적을 60.6억 달러로 전년 대비 20%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7) 1944년 체결된 브레턴우즈협정에 따라 1945년에 설립되어, 1947년 3월부터 국제부흥개발은행(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와 함께 업무를 개시한 국제금융기구다. 이 두 기구를 총칭하여 브레턴우즈기구라고도 하며, 약칭은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국제통화기금)이다.

2. 몽골의 년도별 무역현황

몽골은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기 이전에는 주로 COMECON⁸⁾(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경제 상호원 조회의)에 의존하였다면, 개방 이후에 1991년 COMECON 해체와 이들 국가의 체제전환에 따른 경제기반 붕괴로 몽골의 대외무역은 급감하였다. 이러한 몽골의 국제무역 감소는 1994년까지 계속되었으나, 1995년부터 경제의 발전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여 2003년에는 1990년 수준의 대비 90% 가까이 회복되었다. 몽골의 국제무역 증가세는 2000년대 들어서 국제원자재 가격 증가 및 수요 상승, 그중에서도 중국의 원자재 또는 에너지 자원 수요 격증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후로 몽골의 무역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8년 몽골 수출은 80억 29만 달러, 수입은 53억 70만 달러를 기록했고, 총 교역액은 133억 달러로 작년대비 29.5% 증가하였다.

8) 1949 몽골 (1962), 쿠바 (1972), 베트남 (1978)을 포함하여 소비에트 주도 국가들의 연합체로서 경제발전을 조정하려는 국가. 유고 슬라비아에 압력을 가하고 성장하는 서구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에대항하기 위해 스탈린이 사용하였다.

<표 2-2> 몽골의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불, %)

구분	년월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2019 년	7,116	-11.4	6,300	18.7	816
2	2018 년	8,029	29.5	5,307	22.4	2,722
3	2017 년	6,201	26.3	4,335	29.4	1,866
4	2016 년	4,908	20.8	3,350	-22.7	1,558
5	2015 년	4,064	-22.0	4,334	-26.5	-270
6	2014 년	5,211	37.2	5,899	-14.8	-688
7	2013 년	3,799	-6.5	6,921	-12.0	-3,122
8	2012 년	4,062	4.5	7,862	11.9	-3,800
9	2011 년	3,885	38.4	7,028	82.6	-3,143
10	2010 년	2,807	48.9	3,848	78.7	-1,041
11	2009 년	1,885	-25.6	2,153	-33.4	-268
12	2008 년	2,534	30.1	3,232	57.2	-698
13	2007 년	1,947	26.3	2,057	43.7	-110
14	2006 년	1,542	44.9	1,431	21.8	111
15	2005 년	1,064	22.4	1,175	15.3	-111
16	2004 년	869	41.2	1,019	28.9	-150
17	2003 년	615	17.5	791	14.6	-176
18	2002 년	524	-12.1	690	8.3	-166
19	2001 년	596	11.3	638	3.8	-42

자료: 한국무역협회(2020년) <http://stat.kita.net/stat/cstat/anal/AnaCtrProg.screen>

3. 몽골의 국가별 무역현황

몽골과 주요국인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의 교역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해 왔다. 몽골의 최대 수출국이자 주요 투자국인 중국은 몽골과 1971년 외교 관계 수립 후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협력해왔으며, 최근 중국의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중국의 몽골 교역은 1990년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990년에 3,360만 달러에 불과하던 중국 몽골 교역량이 2008년에는 28억 1,39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전년대비 31.7% 감소하고 19억 2,290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러시아는 1921년 외교 관계 수립 이후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왔으나, 1990년 체제전환 이후 러시아의 영향력이 급속히 줄었다. 몽골과 러시아 교역 총량은 2003년에 3억 1,980 만 달러에서 2004년도에 3억 8,470만 달러, 2005년도에 4억 6,750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2008년 에는 13억 2,920만 달러되고 6년간 4배 이상 증가한 결과가 나왔다. 그렇지만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에 러시아의 대몽골 교역량은 8억 3,380만 달러되고 전년 대비 37.3% 하락하였다. 경제 불황으로 인해 2013년도부터 대외교역이 감소하였으나, 몽골 경제 회복에 따라 2017년부터 대외교역이 다시 증가하였다.

몽골·중국·러시아 3개국이 국경으로부터 관계가 있고, 여러 분야에서 국가발전 전략을 실현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물류 분야에서 실현하려는 국제화물 수송 시 운항이다. 인접 도로를 연결하면 중국·몽골·러시아 경제 벨트를 구축하고 중국의 “일대일로”전략, 몽골의 “초원의 길”⁹⁾ 프로젝트, 러시아의 “유라시아 동반자 관계”¹⁰⁾ 전략을 연계하는 중요한 기반을 다진다.

몽골의 제3의 핵심 이웃 국가로 미국, 일본, 한국 등과 교역 확대를 희망하고 있으며, 일본은 몽골 외국 원조액의 40%를 점유하며 지속적인 경제 원조를 통해 자원, 에너지, 금융 등 전략적 분야 진출을 추진하였다.

9) 몽골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 수요를 한국의 선진 기술과 고급 인력과 합치는 정책.

10) 러시아를 주축으로 카자흐스탄, 벨라루시, 키르기스스탄, 아르메이나 등 구소련권 5개국이 서유럽 국가 중심의 유럽연합(EU)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한 연합체.

몽골은 제3의 이웃 정책 (Third Neighbor)¹¹⁾를 바탕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한국, 미국, 일본 등 제3의 국가와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활발한 다자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표 2-3> 몽골의 주요 수출국 (2010~2014년)

(단위: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1	중국	84.4	중국	91.4	중국	91.9	중국	86.7	중국	87.8
2	캐나다	4.9	러시아	2	캐나다	2.7	영국	4.7	영국	6.9
3	러시아	2.8	캐나다	1.9	러시아	1.8	캐나다	3.2	러시아	1.1
4	영국	2.3	이탈리아	1	이탈리아	0.7	러시아	1.4	이탈리아	0.9
5	이탈리아	1.1	한국	0.8	홍콩	0.7	이탈리아	1.2	스위스	0.5
6	한국	1	홍콩	0.7	독일	0.4	독일	0.4	일본	0.4
7	독일	0.8	영국	0.4	한국	0.3	한국	0.3	미국	0.3
8	베트남	0.8	스위스	0.4	영국	0.3	일본	0.2	독일	0.3
9	홍콩	0.4	독일	0.3	스위스	0.2	호주	0.2	싱가포르	0.2
10	미국	0.2	일본	0.2	싱가포르	0.1	프랑스	0.2	한국	0.2

자료: 몽골통계청(2014년) <https://www.customs.gov.mn/>

<표2-3>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몽골의 국가별 수출 동향에 가장 많은 수출을 하는 국가로 중국, 다음으로는 캐나다, 이어서 러시아, 영국, 이탈리아 등이 차지한다. 몽골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 거의 90%으로 가까이 수출되

11) '제3의 이웃 정책'은 한국 등 제3의 이웃을 만들어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완화하고 견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몽골의 정책이다. 오태규, "몽골과 제3의 이웃," 「한겨레」, 2012.06.06.; BolarLkhaajav, "Mongolia's Third Neighbor Policy Blooms," The Diplomat, March 28, 2016.

고 있다. 2010년에 중국이 2,454.4백만 달러로 총수출의 84.4%를 차지하였으며 캐나다는 141.6백만 달러로 4.9%를 차지하였다. 2011년에는 중국이 4,404.6백만 달러로 총수출의 91.4%를 차지하였으며 전년보다 2배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2012, 2013년에 지속해서 증가하고 2014년에는 5,070.1백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한국의 경우 2010년에 30.5백만 달러로 몽골의 총 수출의 1%를 차지하고 주요 수출국가 중에 순위 6위를 하였다. 하지만 2012년부터 점점 감소하다가 2014년에 13.5백만 달러로 총 수출의 0.2%를 차지하였다. 한국의 몽골 수출이 증가하고 감소한 불안정한 결과를 보인다.

<표 2-4> 몽골의 주요 수출국(2015~2019년)

(단위: %)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국가	비 중	국가	비 중	국가	비 중	국가	비 중	국가	비 중
1	중국	83.5	중국	79	중국	85	중국	92.8	중국	96.6
2	영국	7.2	스위스	4.7	영국	10.7	영국	2.5	영국	4.2
3	스위스	2.3	러시아	1.1	러시아	1.1	러시아	1.2	싱가포르	2.2
4	러시아	1.6	독일	0.9	이탈리아	0.7	이탈리아	0.8	스위스	1.1
5	한국	1.4	이탈리아	0.7	싱가포르	0.4	싱가포르	0.4	러시아	1.1
6	이탈리아	0.9	일본	0.3	일본	0.2	일본	0.4	이탈리아	0.6
7	싱가포르	0.6	싱가포르	0.3	홍콩	0.2	한국	0.3	호주	0.6
8	일본	0.4	미국	0.2	한국	0.2	독일	0.2	한국	0.4
9	미국	0.4	한국	0.2	독일	0.2	홍콩	0.2	미국	0.4
10	홍콩	0.3	홍콩	0.2	미국	0.1	베트남	0.1	일본	0.2

자료: 몽골통계청(2019년)<https://www.customs.gov.mn/>

<표2-4>에 따르면 2015년에 중국이 3,897.4백만 달러로 총 수출의 83.5% 차지하였으며, 영국이 337.7백만 달러로 총수출의 7.2%를 차지하였고 몽골의 제2위 주요 수출국이 되었다. 한국은 2015년에 66.6백만 달러로 총 수출의 1.4%를 차지해 전년보다 5배로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2016년부터 한국의 몽골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9년기준으로 27.8백만 달러로 총 수출의 0.4%를 차지하였다. 한편, 중국의 몽골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급감소하였고,

2018년에는 6,505.5백만 달러로 총수출의 92.8%를 차지하고 2019년에도 6,772.7달러로 증가하였다.

몽골의 주요 국가들의 수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제1위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러시아, 일본, 미국, 한국 등이 있다. 중국의 대몽골 수입은 2010년에 \$970,976천불이었다가 2011년에 급증해서 \$2,023,881.3천불을 기록하였다. 한국의 수입은 2013년까지 지속 늘어나고 있다가 2014년부터 최근까지 감소하고 있는 결과를 보인다.

<표 2-5> 몽골의 주요 수입국 (2010~2014년)

(단위: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1	러시아	32.7	중국	30	러시아	27.4	중국	28.1	중국	33
2	중국	29.9	러시아	24.6	중국	27.3	러시아	24.6	러시아	29.6
3	일본	6.1	미국	8.1	미국	8	미국	8.1	일본	7
4	한국	5.7	일본	7.4	일본	7.4	한국	8	한국	6.7
5	미국	5	한국	5.4	한국	6.9	일본	7	미국	4.4
6	독일	2.7	독일	4.1	독일	3.7	독일	4	독일	3
7	프랑스	1.6	우크라이나	2.3	벨라루스	1.9	벨라루스	2.4	프랑스	1
8	싱가포르	1.6	캐나다	1.9	호주	1.2	프랑스	1	싱가포르	1
9	우크라이나	1.3	프랑스	1.5	싱가포르	1	싱가포르	1	폴란드	1
10	호주	1.2	호주	1.4	프랑스	0.9	폴란드	1	이탈리아	1

자료: 몽골통계청(2014년) <https://www.customs.gov.mn/>

<표2-5>를 살펴보면, 2010년에 러시아가 총 수입액의 32.7%, 중국이 29.9%, 일본이 6.1%, 한국이 5.7%, 미국이 5%, 독일이 2.7%, 프랑스는 1.6%를 차지하였다. 2011년에 수입은 124개국으로부터 이루어졌고, 수입액은 65억 2,688만 달러로 증가하였다¹²⁾.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은 총 수입액의 30.7%, 러시아가 24.6%, 미국이 8.1%, 일본 7.4%, 한국이 5.4%, 독일이 4.1%를 차지하였다. 2012년 기준으로 러시아가 1,847.4백만 달러로 총 수입의 27.4%를 차지하였으면, 2013년 2014년에 중국이 30%가까이로 1위를 차지하였다.

12)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Mongolia(2012), 『Mongolian Statistic yearbook 2011』, Ulaanbaatarpress, p.260.

<표 2-6> 몽골의 주요 수입국(2015~2019년)

(단위: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1	중국	35.8	중국	31	중국	32.6	중국	33.5	중국	34.7
2	러시아	26.9	러시아	26.2	러시아	28.1	러시아	29.1	러시아	29.4
3	일본	7.2	일본	9.8	일본	8.4	일본	9.6	일본	10
4	한국	6.8	한국	5.9	미국	4.8	한국	4.5	미국	4.9
5	독일	3.3	미국	4.1	한국	4.6	미국	3.6	한국	4.5
6	미국	3	독일	3.6	독일	3	독일	2.9	독일	3.2
7	폴란드	1	폴란드	1.2	이탈리아	1.1	폴란드	1	폴란드	1.1
8	이탈리아	0.9	우크라이나	1	폴란드	1.1	이탈리아	0.9	호주	1.1
9	카자흐스 탄	0.8	이탈리아	1	호주	0.8	호주	0.8	이탈리아	1
10	프랑스	0.7	카자흐스탄	0.9	카자흐스 탄	0.8	캐나다	0.7	캐나다	0.8

자료 : 몽골통계청(2019년)<https://www.customs.gov.mn/>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볼 때<표2-6>,몽골 총 수입의 약 60%는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다음으로 일본은 2015년도에 7.2%, 2016년도에 9.8%, 2017년도에 8.4%, 2018년도에 9.6%, 2019년 기준으로 1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14년부터 지속해서 증가하다가 2017년부터 감소한 결과가 보였다.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이 267백만 달러로 몽골 총 수입의 4.5%를 차지하였다.

4. 몽골의 품목별 무역현황

몽골의 대외무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원자재와 천연 자원품이다. 수입 측면에는 중국에서 주로 트럭, 디젤유, 식료품이며, 러시아로부터는 석유, 디젤연료, 설탕, 일본에서 주로 승용차, 한국에서는 트럭과 승용차 등을 수입하고 있다. 대외무역의 비중이 가장 높은 수출품목은 광물이며, 2019년 기준은 76.7%로 급증하였다. 전 수출품 중에 석탄, 구리와 형석 등 광물이 총 비중의 89%를 차지하였다¹³⁾. 석탄과 구리의 수출 비중이 높은 이유는 중국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몽골의 수출입 규모를 주로 수출입 상품별로 나눠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2-7>에서는 수출된 상품을 종류별로 나누어서 총 수출을 100%로 치고, 아래 상품의 연도별 차지한 비중을 비율로 보여 준다. 2019년 총 수출액이 76억1960만 달러가 되고, 전년보다 6억79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2019년 기준으로 주요 수출품은 광물성 생산품이 총 수출의 83.7%를 차지하고 있으며,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이 6.8%, 천연진주, 양식진주, 귀석, 반귀석, 귀금석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이 5.5%로 그 뒤를 차지하였다.

13)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Mongolia(2019), 『Mongolian Statistic yearbook 2019』, Ulaanbaatar press, p.260.

<표 2-7> 몽골의 주요 수출 품목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광물성 생산품	4,933.7	79.6	6,070.3	86.6	6,377.5	83.7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335.4	5.4	409.8	5.8	434.7	6.8
천연진주, 양식진주, 귀석, 반귀석, 귀금석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569.9	9.6	145.5	2.1	419.07	5.5
기타	334.6	5.4	386.1	5.5	388.33	4
총 수출액	6,200.6	100	7,011.7	100	7,619.6	100

자료: 몽골관세청(2019년)<https://www.customs.gov.mn/>

몽골의 주요 수입품은 광물성 생산품과 기계류 및 전기기기, 가전제품이 전체 수입의 42.6%를 차지하며, 자동차 및 관련부품, 비금속과 그 제품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자원개발과 경제개발을 위해 기계류 및 원자재, 승용차, 트럭 등 운송수단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이 제일 취약한 산업구조를 반영하여 제조업 상품이 주를 이룬다. 몽골은 긴 겨울과 시설농업 부족때문에 채소류 수입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 주요 수입품목은 중국으로부터는 트럭, 식료품, 러시아로부터는 석유, 디젤연료, 설탕, 일본과 독일로부터는 승용차, 미국으로부터는 트럭, 한국으로부터는 트럭과 승용차를 포함한 운송수단을 수입하고 있다.

<표 2-8> 몽골의 주요 수입 품목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7 년		2018 년		2019 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광물성 생산품	985.9	22.7	1,325.7	22.6	1,372.3	22.4
기계류 및 전기기기 와 이들의 부분품	920.8	21.2	1,285.9	21.9	1,240.7	20.2
차량, 항공기, 선박 과 수송기기 관련품	622.6	14.4	896.7	15.3	1,163.7	18.9
비금속과 그 제품	333.9	7.7	540.3	9.2	541.9	8.8
조제식료품	378.7	8.7	436.7	7.4	444.3	7.2
화학공업 생산품	315	7.3	372.1	6.3	365.8	5.9
기타	778.5	18	1017.6	17.3	998.8	16.6
총 수입액	4,335.4	100	5,875	100	6,127.5	100

자료: 몽골관세청(2019년) <https://www.customs.gov.mn/>

2019년 몽골 관세청의 분석을 따르면 몽골의 수입구조는 다음과 같다.<표2-8>에서는 수입된 상품을 종류별로 나누어서 총 수입을 100%로 치고, 아래 상품의 연도별 차지한 비중을 비율로 보여 준다. 수입상품 구조를 비율로 분석하면, 광물성 생산품이 총 수입에서 22.4%로 1위를 차지하였고, 기계류 및 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이 20.2%로 2위, 차량, 항공기, 선박과 수송기기 관련 품이 18.9%로 3 위, 비금속과 그 제품의 종류가 8.8%로 4위, 그 다음으로 조제 식료품이 7.2%, 화학공업 생산품이 5.9% 로 차지한다. 수입상품 종류가 수출상품보다 다양화 돼 있다.

제 2절 한국과 몽골 무역현황 및 투자현황

1. 한국과 몽골간의 년도별 무역현황

몽골은 제3의 이웃 국가 중 대한민국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상호적 협력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¹⁴⁾.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 한국에 유학 온 학생들, 한국 음식 및 한류의 영향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몽골 내 한국의 영향력은 아주 높다.

한·몽 외교수립 이후부터 양국의 교역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2019년 기준 총 2억9418만 달러에 도달하였고 전년 대비 3.7% 증가하였다. 한국은 현재 몽골의 제4위 교역 대상국이지만 몽골의 총 교역에서 양국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2%에 불과하였다. 최근 양국 교역상황을 살펴보면 2010~2013년에는 전년 대비 평균 44% 증가하였으며, 2014년(8.4%)부터 몽골의 경제위기로 인해 둔화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2014년에 -29.7%, 2015년에 -11.1%, 2016년에는 -36.6% 등 교역량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2017년부터 몽골 경제가 회복되면서 양국 교역도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였는데, 2017년 1.4%, 2018년 35.5% 증가하였다. 2018년 기준 2억 8356만 달러에 달했고 몽골의 총 교역의 2.2%를(수출의 0.3%, 총수입의 4.5%) 차지하였으며, 2019년에는 3억 2,400만달러를 기록하였다. 2019년 대한국 수입은 5.4%감소하였으면 2020년 2월기준 전년 대비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 Kotra자료: 2019년 몽골 진출전략, p.12.

<표 2-9> 한-몽 양국 간의 연도별 무역 수출입지표 (2010~2020년)

(단위: 천 달러, %)

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감률	중량	증감률	금액	증감률	중량	증감률	
2020년	150,307	-14.4	67,569,443	-13.7	11,293	-30.5	2,546,819	-56.4	139,014
2019년	291,073	-5.4	133,616,380	9.9	32,596	21.2	10,520,902	-2.9	258,477
2018년	307,649	34.7	121,543,849	18.0	26,905	90.1	10,833,727	38.7	280,744
2017년	228,353	9.4	103,011,616	15.8	14,156	36.7	7,808,966	-25.4	214,197
2016년	208,710	-15.0	88,942,484	2.9	10,355	-77.6	10,469,713	-61.8	198,355
2015년	245,674	-29.2	86,410,791	-37.0	46,187	95.8	27,427,618	24.2	199,487
2014년	346,808	-13.2	137,254,120	-16.7	23,585	-12.5	22,087,470	26.1	323,223
2013년	399,472	-7.8	164,700,845	-12.4	26,958	-49.7	17,514,219	-7.5	372,514
2012년	433,457	23.9	188,013,844	29.4	53,598	-11.6	18,937,258	-75.7	379,859
2011년	349,874	82.6	145,263,731	60.0	60,623	56.1	78,037,517	366.3	289,251
2010년	191,631	14.8	90,813,110	47.7	38,839	80.8	16,734,593	116.8	152,792

자료: 한국무역협회(2020년) <http://stat.kita.net/stat/cstat/anal/AnaCtrProg.screen#>

2. 한국과 몽골간의 품목별 무역현황

한국과 몽골의 교역은 외교 관계 수립 이전에는 원료를 수입하여 제품으로 만들어서 수출하는 교역구조였다. 1990년대 한국은 주로 승용차, 의료용기기, 컴퓨터, 섬유제품 등을 수출하였고, 각종 광물자원을 수입하였는데, 이러한 교역구조는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몽골의 정부 광산업 발전을 위해 외국인투자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광산업에 관한 탐사기관들의 장비, 대량 화물차 및 트럭 등의 수요에 따라서 한국이 대몽골 수출의 주로 10대 품목의 1위를 자동차 도로주행 차량이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호식품이 2위를 차지하고, 석유제품이 3위, 건설광산 기계가 4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몽골 10대 수출 품목이 2009년에는 거의 다 마이너스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2011년 이후 품목마다 높은 증가세를 기록되어 있다. 예컨대 수출상품의 금액이 늘었지만, 종류가 그때로 있고 순위에만 차이난 것으로 보인다.

<표 2-10> 한국의 대몽골 10대 수출 품목(2016, 2017년)

(단위: 천 달러, %)

한국대 몽골 수출 품목 2016년				한국대 몽골 수출 품목 2017년			
순위	품목	금액	비중	순위	품목	금액	비중
1	자동차	34504	16.5	1	자동차	29579	13
2	기호식품	22650	10.9	2	기호식품	25230	11
3	석유제품	17515	8.4	3	석유제품	20820	9.1
4	비누치약 및 화장품	10115	4.8	4	건설광산 기계	20468	9
5	건설광산 기계	7818	3.7	5	비누치약 및 화장품	11843	5.2
6	농약 및 의약품	5067	2.4	6	자동차부품	7363	3.2
7	농산가공품	5068	2.4	7	농산가공품	6696	2.9
8	플라스틱 제품	4300	2.1	8	농약 및 의약품	6428	2.8
9	전자응용기기	3537	1.7	9	플라스틱 제품	5135	2.2
10	자동차부품	2147	1	10	전자응용기기	3204	1.4

자료: 한국무역협회(2017년) <http://stat.kita.net/main.screen>

<표2-10>에서는 한국 대몽골 10대 수출 품목을 살펴보면, 2016년에는 자동차가 34,504천 달러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기호식품 22,650천 달러, 석유제품 17,515천 달러, 비누 치약 및 화장품 10,115천 달러, 건설광산 기계 7,818천 달러, 농약 및 의약품 5,067천 달러, 농산가공품 5,068천 달러, 플라스틱제품 4,300천 달러, 전자응용기기 3,537천 달러, 그리고 자동차부품이 2,147천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7년 기준으로 한국 대몽골 10대 수출 품목에서 자동차가 총 수출 품목의 13%로 1위를 차지하였으면, 기호식품이 11%로 2위, 석유제품이 9.1%로 3위, 건설광산 기계가 9%로 4위, 비누치약 및 화장품이 5.2%로 5위, 자동차 부품이 3.2%로 6위, 농산가공품이 2.9%로 7위, 농약 및 의약품이 2.8%로 8위, 플라스틱 제품이 2.2%로 9위, 그리고 전자응용기기 1.4%로 10위를 기록하였다..

<표 2-11> 한국의 대몽골 10대 수출 품목(2018, 2019년)

(단위: 천 달러, %)

한국대 몽골 수출 품목 2018년				한국대 몽골 수출 품목 2019년			
순위	품목	금액	비중	순위	품목	금액	비중
1	자동차	36106	11.7	1	자동차	38623	13.3
2	기호식품	30191	9.8	2	기호식품	33315	11.4
3	건설광산기계	27665	9	3	석유제품	23686	8.1
4	석유제품	23135	7.5	4	건설광산 기계	21369	7.3
5	비누치약 및 화장품	12914	4.2	5	비누치약 및 화장품	16801	5.8
6	전자응용기기	11082	3.6	6	농약 및 의약품	10602	3.6
7	농약 및 의약품	9913	3.2	7	농산가공품	9721	3.3
8	자동차부품	9394	3.1	8	자동차부품	7478	2.6
9	농산기강품	7670	2.5	9	플라스틱 제품	6858	2.4
10	플라스틱 제품	5719	1.9	10	전자응용기기	5241	1.8

자료: 한국무역협회(2019년) <http://stat.kita.net/main.screen>

1990년대 한국은 주로 승용차, 의료용기기, 컴퓨터, 섬유제품 등을 수출하였고, 각종 광물자원을 수입하였는데, 이러한 교역구조는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지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표2-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년 기준 한국의 대몽골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가 36,106천 달러로 11.7%, 기호식품이 30,191천 달러로 9.8%, 건설광산기계가 27,665천 달러로 9%, 석유제품이 23,135천 달러로 7.5%등 자본집약적 제조업 제품들이 차지하였다. 그런데 2019년에는 자동차가 38,623천 달러로 13.3%, 기호식품이 33,315천 달러로 11.4%, 석유제품이 23,686천 달러로 8.1%, 건설광산 기계가 21,369천 달러로 7.3%를 차지해 전년 보다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 한국의 대몽골 주요 수출품목의 총 금액이 증가했지만, 종류가 변하지 않고 순위에 만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2> 한국의 대몽골 10대 수입 품목(2016, 2017년)

(단위: 천 달러, %)

한국의 수입 품목 2016년				한국의 수입 품목 2017년			
순위	품목	금액	비중	순위	품목	금액	비중
1	의류	3829	37	1	의류	6610	46.7
2	기타비금속광물	2289	22.1	2	기타금속광물	2367	16.7
3	축산부산물	1130	10.9	3	기타비금속광물	1550	10.9
4	기타농산물	746	7.2	4	축산부산물	586	4.1
5	축산가공품	358	3.5	5	컴퓨터	569	4
6	기타금속광물	342	3.3	6	축산가공품	355	2.5
7	곡실류	316	3	7	금형	295	2.1
8	석유제품	149	1.4	8	기타인쇄물	281	2
9	가죽	142	1.3	9	알루미늄	239	1.7
10	천연섬유사	139	1.3	10	식물성물질	215	1.5

자료: 한국무역협회(2017년) <http://stat.kita.net/main.screen>

<표 2-13> 한국의 대몽골 10대 수입 품목(2018, 2019년)

(단위: 천 달러, %)

한국의 수입 품목 2018년				한국의 수입 품목 2019년			
순위	품목	금액	비중	순위	품목	금액	비중
1	의류	8476	31.5	1	의류	16036	49.2
2	기타금속광물	8212	30.5	2	기타금속광물	9563	29.3
3	동광	4844	18	3	기타비금속광물	3268	10
4	기타비금속광물	1383	5.1	4	축산부산물	1022	3.1
5	축산부산물	1160	4.3	5	축산가공품	448	1.4
6	알루미늄	485	1.8	6	컴퓨터	351	1.1
7	축산가공품	406	1.5	7	알루미늄	339	1
8	식물성물질	292	1.1	8	기타인쇄물	300	0.9
9	석유제품	260	1	9	의류용기기	288	0.9
10	기타인쇄물	259	1	10	석유제품	256	0.8

자료: 한국무역협회(2019년) <http://stat.kita.net/main.screen>

몽골은 전 세계 10대 광물자원 부국으로 한국에 필요한 광물자원 공급국가이다. 몽골은 80여 종류에 광물을 보유하고 에너지 및 광물 자원 협력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다. 그중 석탄, 구리, 몰리브덴, 금, 형석, 철, 은, 우라늄, 아연, 석유 등이 주요 전략 광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수입은 의류, 기타금속광물, 동광, 기타비금속광물, 축산부산물 등 품목이 89.2%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수입에는 광물 비중이 높았다.

이와 같이 한국과 몽골간 교역의 특징은 몽골의 한국에 대한 수출의 경우 큰 증가세 없이 꾸준히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몽골에 대한 수출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3. 한국과 몽골의 투자현황

몽골은 세계무역기구(WTO)에 1997년에 가입해 투자지원 및 보호를 위한 국제 계약, 조약에 가입하였다. 또한, 세계 44개국과 투자협정(국적에 상관없이 동등한 투자 권리를 부여하는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기준으로 36개국과의 협정이 유효하다. 국내 법률의 경우 2013년에 신투자법을 제정하였으며, 해당 법안은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 내·외국 투자자에 대한 차별 없이 동등한 수준의 투자 성과보수 제공하는 것이 골자이다. 몽골 정부는 몽골의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분야인 국내자원 가공업, 광산업, 정보통신업, 농산업, 관광산업 및 기간산업의 발전을 추구하는 한편 이들 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몽골 내 외국인 직접투자액을 자세히 살펴보면, 광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중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2-14> 최근 9년간 대몽골 외국인 투자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2
총투자액	4,208	2,019	231	83	-4,171	1,446	2,137	2,086	215
광업비중	74.7%	77.2%	63.8%	58.5%	63.3%	69.4%	74.5 %	72.7%	n/a

자료: 몽골 중앙은행(2020년)

<표 2-15> 한국의 대몽골 직접 투자현황

(단위: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1994~1999	23	14	13,648	21	9,002
2000	13	7	5,457	15	2,584
2001	9	4	4,552	14	2,634
2002	13	4	5,715	13	2,884
2003	11	8	4,567	19	1,337
2004	29	18	7,931	48	3,485
2005	52	25	14,226	104	6,705
2006	52	26	44,129	119	19,703
2007	102	55	50,621	179	44,433
2008	189	78	164,916	261	60,411
2009	114	46	123,017	204	28,285
2010	113	44	58,271	161	27,120
2011	132	52	59,979	171	44,118
2012	131	45	96,042	187	56,055
2013	114	32	59,463	166	49,215
2014	109	44	43,394	141	32,041
2015	109	32	83,404	135	38,833
2016	71	14	30,922	97	10,848
2017	79	33	21,346	101	14,000
2018	85	26	43,609	124	24,286
2019	93	45	26,087	115	16,731
2020	21	9	24,220	31	2,98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20년) <https://www.koreaexim.go.kr/site/main/index001>

한국의 공식적인 대몽골 투자는 1994년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의 대몽골 연간 직접투자액은 1994년 24만 달러에서 2015년 3,883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1994년에서 2015년까지 한국의 대몽골 직접 투자 누적총액은 4억2,884만 달러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의 총 해외투자 금액의 약 0.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빠른 회복세를 보였던 한국의 대몽골 투자는 최근 몽골 경제 성장 둔화 및 국제원자재 가격 약세 등으로 다시 감소해 2019년 16,731천 달러로 기록되었다. 2020년 5월 기준으로 한국의 대몽골 누적 투자액은 2,980천 달러로 기록하고 있다.

<표 2-16> 한국의 대몽골 업종별 투자현황

(단위: 백만 달러)

업종 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비중
건설업	178	82	101	58.64	11.8%
광업	292	49	334	131	26.3%
금융 및 보험업	28	13	5	4	0.8%
농업, 임업 및 어업	58	17	11.28	5.4	1.08%
도매 및 소매업	402	173	155	93	18.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0	12	44	25	5.0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23	11	13.4	3.69	0.74%
제조업	172	96	76	26	5.2%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2	4	5.1	3	0.6%
운수 및 창고업	56	19	19	14	2.8%
숙박 및 음식점업	35	25	17	10	2%
정보통신업	64	25	45.6	29.96	6.01%
부동산업	128	40	105	57.28	11.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1	50	24	19	3.8%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4	30	24	14	2.8%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	3	0	0	0
교육 서비스업	5	5	0	0	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	6	2.32	2	0.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0	11	2.68	0.676	0.13%
합계	1,705	671	986	498	1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표 2-16>투자 업종별로는 총금액 기준이 광업 부문이 130,685천 달러로 전체 투자의 26.3%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고, 그다음은 도소매업 92,530천 달러로 18.7%, 건설업이 58,640천 달러로 11.8%,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57,280천 달러로 11.5% 를 차지하고 있다. 광산업에 대한 투자는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2008년에 5,850만 달러 투자되어 총 광업투자의 42.2%를 기록하고 있다. 주로 비금속광물과 금속광물, 금, 석탄 분야에 50만 달러의 투자를 통해 몽골의 광업 분야에 처음 진출하였으며, 2010 년까지 총 4,271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도매와 소매업에 대한 투자는 1994년 부터 계속 이루어졌으며 최초에는 자동차 이들의 부분품 판매와 전자상거래 및 무점포 소매업 중심으로 진출하였다. 2007년 이후 부터는 중고자동차 판매와 담배, 가정용 요업제품, 주방용품, 여행용품, 기계 및 장비, 금속제품, 화장품,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판매 등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도매 및 소매업의 특징은 대기업의 단독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주요기업 현황으로는 한국통신이 몽골통신에 40% 지분으로 경영권 참여 중이며, 대한전선 및 sk텔레콤은 몽골 제2 휴대용 전화사업자로 선정되어 1999년 7월 부터 사업을 개시하였다. 삼성물산은 “에르데넛” 동광으로부터의 동정광(copper concentrate)구매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기아 자동차 지정 딜러(Dealer)및 정비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담배인삼공사는 담배 판매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1991년 9월 항공협정을 체결하고 1996년 4월 서울-울란바타르 간 직 항노선을 개설하여 양국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제3절 선행 연구

한·몽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연구는 2006년 이후부터 진행되고 있었으며 선행 연구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Christian Helmers(2006)¹⁵⁾와 몽골 산업통상부의 공동연구에서 몽골의 주요 수출입국인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가능성을 몽골의 수출중심으로 분석하고 일본 및 한국의 경우 수출 증가와 관세철폐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가장높게 나타남을 제시하였다. 김지연(2010)에 따르면 몽골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제3의 이웃 국가 중 한국을 인식하고 있으며 협력관계 확대를 더 기대하고 있고 빠른 경제발전을 이룬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전수받기를 희망하고 있어 현재 약 3만 명 정도의 몽골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으며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민간 교류가 더욱 확대될것을 기대하여 최근 한국에서는 자원산업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면서 몽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심의섭(2006)¹⁶⁾은 자유무역협정은 경제력의 격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제시하며 수직적 한·몽 자유무역협정을 제안하였다. 양국 간 무역, 투자, 고용의 증가를 통하여 더 큰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김홍진(2006)¹⁷⁾은 몽골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한·몽 자유무역협정을 논의할 때 실증 분석에 매달리기 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파악해야 함을 논의하였다. 또한 양국은 미래 협력 가능 산업인 광산업, 통신 산업, 철도 연결사업 등에 큰 잠재력이 있으며 장기적 경제 협력이 중요함을 설명하였다. 김세영 외(2010)¹⁸⁾는 103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행한 실증분석에서 자원부국 몽골과 한국의FTA는 긍정적 결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Munkhnasan(2011)¹⁹⁾의 실증 분석결과에서 한·몽 간 자유무역협정에서 긍정적인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양국은 대외무역을 확대할 잠재력을 활용하여 더욱 경제적 이익을 얻고 양국 교역이 증대될 것으로 주장하였다. 또한 양

15) Helmers, Christian(2006), Options for Mongolia for the Formation of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s, Options in Merchandise Trade: An Overview.

16) Shim Ui Sup, (2006), Thinking about Mon-Korea FTA.

17) 김홍진(2006), 한·몽 경제협력 증진에 대한 고찰: FTA 가능성을 중심으로.

18) 김세영 양경희(2010) 한·몽 FTA 가능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19) Munkhnasan(2011), 몽골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연구: 한·몽 FTA 가능성을 중심으로.

국간 무역에서는 운송비용과 한국의 높은 관세율이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것을 자유무역협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Batnasan외(2012)²⁰실증 분석결과에서 지리적으로 비교적 가까운 국가인 한국과의 FTA 체결은 중요하며, 몽골의 이웃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의 제약은 위협적이어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Otgonsaikhan외(2015)²¹실증 분석결과에서는 몽-한 자유무역협정은 의의가 있고 이 협정의 가장 큰 문제는 운송과정과 비용임을 강조하였다.

Amarjargal.B(2007)는 한·몽골 FTA와 농업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국민정서는 동질적이지만 산업 규모나 농업생산은 규모의 차이와 더불어 이질적으로 한-몽골 FTA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위험은 낮고 상호 보완관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언급한 선행 연구들은 몽골이 어떤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분석한 연구이며 자유무역협정이 몽골의 교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더 효과적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분석하고 있었다.

20) Батнасан, Н. ба бусад (2012) Худалдааны гол түнш орнуудтай чөлөөт худалдааны хэлэлцээр байгуулах боломж болон эрсдэл. р. 34.

21) Отгонсай хан, Н. ба бусад (2015) БНСУ ба Монгол улсын хооронд чөлөөт худалдааны хэлэлцээр байгуулах боломжийн тухай шинжилгээ.

선행 연구의 검토

	연구자 이름	연구의 제목	핵심 내용
1	심의섭(2006)	Thinking about Mon-Korea FTA	자유무역협정은 경제력의 격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제시하며 수직적 한·몽 자유무역협정을 제안하였다.
2	김홍진(2006)	한·몽 경제협력 증진에 대한 고찰	몽골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한·몽 자유무역협정을 논의할 때 실증 분석에 매달리기 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파악해야 함을 논의하였다.
3	Christian Helmers (2006)	Options for Mongolia for the Formation of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s, Options in Merchandise Trade	몽골의 주요 수출입국인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가능성을 몽골의 수출중심으로 분석하고 일본 및 한국의 경우 수출 증가와 관세철폐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가장높게 나타남을 제시하였다.
3	김세영(2010)	한·몽 FTA 가능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103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행한 실증분석에서 자원부국 몽골과 한국의FTA는 긍정적 결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4	Munkhnasan (2011)	몽골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연구	실증분석 결과에서 한·몽 간 자유무역협정에서 긍정적인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양국은 대외무역을 확대할잠재력을 활용하여 더욱 경제적 이익을 얻고 양국 교역이 증대될 것으로 주장하였다.
5	Batnasan (2012)	Худалдааны гол түнш орнуудтай чөлөөт худалдааны хэлэлцээр байгуулах боломж болон эрсдэл	실증분석 결과에서 지리적으로 비교적가까운 국가인 한국과의 FTA 체결은 중요하며, 몽골의 이웃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의 제약은위협이 있어서 감안해야 함을 강조했다.

제3장 한국과 몽골간의 무역경쟁력 비교분석

제1절 경쟁력분석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비교우위론

비교우위 원리는 1817년 리카도(D.Ricardo)의“정치경제 및 관세원론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이라는 책에 소개되어 있다. 비교우위 법칙은 비록한 국가가 두 가지 상품의 생산에서 모두 다른 국가보다 비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는 무역이 가능함을 설명하고 있다²²⁾.

예를 들어 A국이 B국가 비교하면 두 재화 모두에서 노동생산성이 더 높더라도 각 국가는 상대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더 높은 재화에 비교우위를 갖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두 나라가 서로 다른 재화를 교환한다는 것은 국제균형 상대가격이 두 나라의 국내 상대가격 사이에 있음을 나타내므로 비교우위론은 아무리 생산성이 낮은 국가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비교우위를 갖는 재화가 있으며, 이 재화를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노동생산성이 낮은 재화의 절대가격이 노동생산성이 높은 다른 국가의 가격보다 낮아지는 이유를 양국의 임금수준의 차이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모든 재화의 생산에서 절대 열위에 있는 국가는 상대국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아야 한다는 명제를 충족시켜야만한다. 또한 무역의 운송비와 같은 서비스무역²³⁾에 대한 설명을 배제하고 있는 점도 그 한계로 지적된다. 리카도 모형에서는 노동만이 희소한 생산요소로 간주되어 재화의 생산량은 투입된 노동량에 의해 결정된다. 재화의 생산에는 노동과 함께 자본도 필요하다고 한다. 노동과 자본을 생산요소로 고려하는 일반적인 생산함수를 신고전파적인 생산함수라고 한다.²⁴⁾

22) 김신행·김태기, 「국제무역론」, 전남대출판사, 2004, p.37.

23) 서비스무역은 인력의 이동과 같은 제한 요소로 인해 고용이나 부가 가치생산규모에 비해 무역 규모가 작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함께 서비스 시장도 경쟁 환경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서비스 무역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서비스 무역 관련지표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4) 조현승,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수출경쟁력 분석”, 「산업경제분석」, 2008, p.35.

그 대표적인 함수로 헉셔-오린의 정리를 든다. 헉셔-오린 모형은 두 나라 간에 생산함수와 사후후생함수가 서로 같고, 요소부존도만이 차이가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양국 간의 무역패턴은 두 나라의 요소부존도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헉셔-오린 정리(Heckscher-Ohlin Theorem)는 노동풍부국은 노동집약재에 비교우위를 갖고, 자본풍부국은 자본집약재에 비교우위를 갖는다는 것이다. 즉 국가 간 요소부존도의 차이에 의해 무역패턴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노동풍부국은 노동이 풍부하여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노동집약재를 싸게 생산할 수 있고, 반면에 자본풍부국은 자본이 풍부하여 상대적으로 자본가격이 낮으므로 자본집약재를 싸게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풍부국은 노동집약재에 비교우위를 갖고, 반대로 자본풍부국은 자본집약재에 비교우위를 갖는다는 것이다²⁵⁾.

이러한 비교우위 이론은 국제무역은 물론 경제정책 수립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국제경쟁력에 대한 전통적 설명도 주로 리카도(D.Ricardo)와 헉셔-오린(Heckscher Ohlin) 등에 의해 정립된 비교우위 이론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비교우위 이론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동태적으로 변화하는 경제상황하에서 어느 국가의 경제 성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비교우위나 국제경쟁력 등을 설명하는데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5) 김신행 · 김태기, 전계서, p.48, p.73-76.

제2절 현시비교우위(RCA)지수

국제경쟁력 평가방법은 사전적 평가방법과 사후적 평가 방법으로 나누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사전적 평가방법은 일종의 전략적 분석을 말하고 사후적 평가방법은 실현된 성취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통계적 방법으로 지난 교역이 가지는 의미를 수치로서 확인하는 방법이다. 사전적 평가로는 SWOT(Strength-Weakness-Opportunity-Threat)등이 있으며, 사후적 평가인 무역 통계를 이용하여 경쟁력을 파악하는 분석지표로는 시장 점유율지수(MarketShare Index:MSI), 무역 특화지수(Trade Specification Index:TSI), 수출경합지수(Export Similarity Index: ESI),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등이 있다.

국제 무역 이론에 따르면 어떤 나라든지 비교적 유리한 제품을 중심으로 생산을 개발하고, 그것을 판매한 것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본다. 그러나 어느 나라에서 어떤 제품을 판매할 수 있고, 또는 역으로 어떤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를 바로 정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판매의 대한 상품의 장단점을 결정하기 위해 생산 비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각 나라의 특성에 따라 제품의 생산비용이 각각 다르며, 현재로서 정확한 가격 구성요들을 계산할 수가 없다. 따라서 비용 차를 나타낼 수 있는 요소인 비용차이의 척도인 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를 사용할 수 있다. 헝가리의 과학자 벨라 발라사 Bela Balassa (Balassa, 1965)는 처음으로 비교우위 수치의 사용을 제안하였다. 그에 따르면, 어떠한 제품에 대해서 하나의 국가에서 수출 되는 양을 전세계적으로 수출 되는 양으로 나누는 값을 사용했다. 이러한 지수를 통해 우리는 상대국가에서 우리가 사고, 팔 수 있는 제품이 뭐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어느 정도의 수요 또는 그에 맞는 공급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교역 국가들과 무역 가능 여부를 결정할 때 수출 및 수입의 이 점을 나타내는 수치를 사용한다. 상대적 수입 우위 지수를 사용하여 수출 파트너의 경쟁우위와 수출 비교우위 지수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파트너 국가에 공급할 수 있는 제품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RCA지수는 그 비교 편의성과 함께 여러 단점도 지니고 있다. 첫째, 물

품의 수입액에 상관없이 각국의 수출액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단순 교역량 수 치에 의한 비교우위 분석인 점에서 보호무역 등 여러 조건변화를 파악할 수 없다. 둘째, 특정국가의 수출이 일부 품목이나 산업에 집중될 경우 값이 커지게 되어 비교우위가 과대평가 될 가능성이 있고 또는 수출 가격이 모든 수출 대상국가의 시장에서 동일하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어 동일가격 가정에 의한 편차가 발행 할 수 있다. 셋째, 지표들이 해당 재화의 교역에만 치중함으로써 국내 생산과 소비, 그리고 전체적인 무역수지를 고려하지 못한다²⁶⁾.

한편, 현시비교우위지수는 세계시장에 대해서만 값을 도출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므로 각국시장에서의 수출 양상을 추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시장별 비교우위 (Market comparative advantage: MCA) 지수를 도입하여 보완하기로 한다.

다음은 한국과 몽골의 세계 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10대 수출입 품목을 선택하고(<표3-1>, <표3-2>), 이들 품목 가운데서 양국의 수출입에 모두 해당하는 22개 품목을 분석대상의 품목으로 선정하였다(<표3-3>).

26) Отгонсай хан Батнасан, 2012, Худалдааны гол түнш орнуудтай чөлөөт худалдааны хэлэлцээр байгуулах боломж болон эрсдэл, МУИС Эдийн засгийн сургууль, Otgonsaikhan Batnasan, 2012, 몽골 주요 교역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 가능성 및 장애, 몽골국립대학교 경제대학교, p.5-7.

<표 3-1> 한국의 10대 수출입 품목(2019년)

(단위: 천 달러)

순위	HS 코드	품목	수출액	순위	HS 코드	품목	수입액
1	8542	전자집적회로	79,076,531	1	2709	석유, 역청유 (원유)	70,251,768
2	8703	승용자동차와 그밖의차량	40,454,714	2	8542	전자집적회 로	35,703,237
3	2710	석유와역청유	39,280,011	3	2711	석유가스와 그밖의가스 상태의탄화 수소	24,162,797
4	8708	부분품과 부속품	18,980,831	4	2710	석유와역청 유	17,200,489
5	8517	전화기	17,849,905	5	2701	석탄과석탄 으로제조한 연탄·조개 탄	14,093,333
6	8901	순항선·유람 선·페리보트	17,106,079	6	8517	전화기	12,852,246
7	8473	부분품과부속 품	11,387,997	7	8703	승용자동차 와그밖의차 량	11,111,729
8	8529	부분품	10,188,113	8	8486	반도체보울, 웨이퍼	90,39,330
9	2902	환식탄화수소	9,021,847	9	2601	철광과그정 광	6,952,012
10	8486	반도체보울, 웨이퍼	7,850,709	10	8471	자동자료처 리기계	6,702,002

자료: 한국무역협회(2019년) <http://stat.kita.net/stat/kts/pum/ItemImpExpList.screen>

<표 3-2> 몽골의 10대 수출입 품목(2019년)

(단위: 천 달러)

순위	HS 코드	품목	수출액	순위	HS 코드	품목	수입액
1	2701	석탄과석탄으로 제조한 연탄·조개탄	3,074,376	1	2710	석유와역청유	1,165,775
2	2603	동광과 그 정광	1,795,868	2	8704	화물자동차	421,145
3	2601	철광과그정광	576,412	3	8703	승용자동차와그밖의차량	418,740
4	7108	반귀금석	418,394	4	8426	선박의 데릭(derrick),크레인	186,151
5	2709	석유,역청유(원유)	366,665	5	8802	그밖의항공기(예: 헬리콥터·비행기)	150,024
6	5102	동물의부드러운털이나거친털	302,811	6	7214	철이나비합금강의그밖의봉	113,238
7	2529	장석(長石),백류석(白榴石),하석	205,536	7	8517	전화기	94,847
8	2608	아연광과 그 정광	189,004	8	8431	기계에 전용되거나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88,176
9	7403	정제한구리와 구리합금	68,903	9	3004	의약품	85,110
10	0205	말·당나귀·노새·버새의고기	57,688	10	4011	고무로만든공기타이어	80,291

자료: 몽골관세청(2019년) <https://www.customs.gov.mn/>

<표 3-3> 분석대상 품목

순위	HS코드(4단위)	HS코드명칭	품목명
1	0205	말·당나귀·노새·버새의 고기	말·당나귀·노새·버새의 고기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
2	2529	장석(長石),백류석(白榴石),하석	장석(長石),백류석(白榴石),하석(霞石)과 하석섬장암(霞石閃長巖),형석(螢石)
3	2601	철광과그정광	철광과그정광(精鑛)[배소(焙燒)한황화철 광을포함한다]
4	2603	동광과 그 정광	동광과 그 정광
5	2608	아연광과 그 정광	아연광과 그 정광
6	2709	석유 ,역청유 (원유)	석유 ,역청유 (원유)
7	2701	석탄과석탄으로제조한연탄·조개탄	석탄과석탄으로제조한연탄·조개탄(ovoid)과이와유사한고체연료
8	2710	석유와역청유	석유와역청유(瀝靑油)(원유는제외한다),따로분류되지않은조제품[석유나역청유(瀝靑油)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70이상인것으로서조제품의기초성분이석유나역청유(瀝靑油)인것으로한정한다],웨이트오일(wasteoil)
9	2902	환식탄화수소	환식탄화수소
10	5102	동물의부드러운털이나거친털	동물의부드러운털이나거친털[카드(card)하지도코움(comb)하지도않은것으로한정한다]
11	7108	반귀금석	금(백금을도금한금을포함하며,가공하지않은것·반가공한모양이나가무모양인것으로한정한다)
12	7403	정제한구리와구리합금	정제한구리와구리합금(가공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13	8426	선박의데릭(derrick), 크레인	선박의데릭(derrick),크레인(케이블크 레인을포함한다),이동식양하대·스트 래들캐리어(straddlecarrier),크레인이 결합된작업트럭
14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	자동자료처리기계와그단위기기,자기 식이나광학식판독기,자료를자료매체 에부호형태로전사하는기계와이러한 자료의처리기계(따로분류되지않은것 으로한정한다)
15	8473	부분품과 부속품	제8469호부터제8472호까지에해당하 는기계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되는부 분품과부속품(커버·휴대용케이스와 이와유사한물품은제외한다)
16	8486	반도체보울, 웨이퍼	반도체보울(boule)이나웨이퍼(wafer) ·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 판디스플레이의제조에전용되거나주 로사용되는기계와기기,이류의주제9호 다목에서특정한기계와기기,그부분품 과부속품
17	8542	전자집적회로	전자집적회로
18	8517	전화기	전화기(셀룰러통신망이나그밖의무선 통신망용전화기를포함한다)와음성· 영상이나그밖의자료의송신용·수신 용그밖의기기(근거리통신망이나원거 리통신망과같은유선·무선통신망에 서통신하기위한기기를포함하며,제844 3호·제8525호·제8527호·제8528호 의송신용·수신용기기는제외한다)
19	8529	부분품	부분품(제8525호부터제8528호까지에 열거된물품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되 는것으로한정한다)

20	8703	승용자동차와그밖의차량	주로사람을수송할수있도록설계된승용자동차와그밖의차량[제8702호의것은제외하며,스테이션왜건(stationwagon)과경주용자동차를포함한다]
21	8708	부분품과부속품	부분품과부속품(제8701호부터제8705호까지의차량용으로한정한다)
22	8901	순항선·유람선·페리보트	순항선·유람선·페리보트(ferry-boat)·화물선·부선(barge)과이와유사한선박(사람이나화물수송용으로한정한다)

1. 현시비교우위지수 (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 Balassa(1965)에 의해 제안된 각국의 비교우위 측정법으로서 일국에 있어서 재화별 비교우위를 무역의 관점에서 사후적으로 집계하는 국제경쟁력 측정 방법이다²⁷⁾.
- RCA 지수는 세계시장에서 일국의 특정 제품 수출시장점유율 증가가 해외시장의 외생적 수요변화 요인보다도 해당 수출품의 경쟁력 증가요인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는 데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 RCA 지수가 1보다 크면 우리나라가 i국의 k상품 시장에서 비교우위 즉 상대적 수출 경쟁력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RCA_i^k = \left(\frac{X_i^k}{WX^k} \right) / \left(\frac{X^i}{WX} \right)$$

여기서는, X_k^i 는 i 국의 k 상품 수출액, X^i 는 i국의 전체 수출액, WX^k 는 전 세계의 k 상품 전체 수출액, WX 는 전 세계의 전체 수출액이다.

<표 3-4> RCA함수 변수정리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전세계 수출액	한국의 전체 수출액	몽골의 전체 수출액
2019년	18,694,022	541,847	7,619.63

27) Bela Balassa, 1965, Trade Liberalisation and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The Manchester school.

<표 3-5> 한국의 대세계 RCA지수(2019년)

(단위: 달러)

HS 코드 (4 단위)	품목명	한국의 k상품 수출액	전세계k상품 전체 수출액	RCA지수
0205	말·당나귀·노새·버새 의 고기	0	405,429,222	0
2529	장석(長石), 백류석(白 榴石), 하석	3,414,254	1,294,094,259	0.09109
2601	철광과그정광	353,544	114,906,041,281	0.0001
2603	동광과 그 정광	260,669,187	56,865,098,556	0.1582
2608	아연광과 그 정광	20,411,700	9,159,188,836	0.07689
2709	석유, 역청유 (원유)	5,724	639,955,767,284	0.0000003
2701	석탄과석탄으로제조 한연탄·조개탄	215,267	111,324,073,508	0.000067
2710	석유와역청유	39,280,010,507	700,596,417,920	1.9347
2902	환식탄화수소	9,021,846,626	41,326,378,978	7.533
5102	동물의부드러운털이 나거친털	14,444	360,764,916	0.001668
7108	반귀금석	885,384,626	285,834,053,002	0.10688
7403	정제한구리와구리합 금	1,643,644,841	51,657,373,625	1.0979
8426	선박의 데릭(derrick), 크레인	321,766,107	13,203,127,646	0.8409
8471	자동차료처리기계	1,049,929,917	352,957,338,678	0.10264
8473	부분품과 부속품	11,387,996,806	125,514,312,447	3.1308
8486	반도체보울, 웨이퍼	7,850,709,379	81,709,628,379	3.3150
8542	전자집적회로	79,076,531,427	704,438,340,280	3.8735
8517	전화기	17,849,905,209	565,004,417,751	1.0901
8529	부분품	10,188,112,811	58,650,099,104	5.9941
8703	승용자동차와그밖의 차량	40,454,714,497	762,523,863,277	1.8307
8708	부분품과부속품	18,980,831,261	393,363,330,335	1.6650
8901	순항선·유람선·페 리보트	17,106,079,406	66,739,948,268	8.8443

<표 3-6> 몽골의 대세계 RCA지수(2019년)

(단위: 달러)

HS 코드 (4 단위)	품목명	몽골의 k상품 수출액	전세계k상품 전체 수출액	RCA지수
0205	말·당나귀·노새·버새 의 고기	57,688,583	405,429,222	347.04
2529	장석(長石),백류석(白 榴石),하석	205,258,247	1,294,094,259	386.85
2601	철광과그정광	576,576,478	114,906,041,281	12.23
2603	동광과 그 정광	1,795,868,367	56,865,098,556	77.03
2608	아연광과 그 정광	189,004,609	9,159,188,836	50.33
2709	석유,역청유(원유)	366,665,785	639,955,767,284	1.3974
2701	석탄과석탄으로제조한 연탄·조개탄	3,074,373,210	111,324,073,508	67.357
2710	석유와역청유	12,130,360	700,596,417,920	0.04223
2902	환식탄화수소	0	41,326,378,978	0
5102	동물의부드러운털이나 거친털	302,811,769	360,764,916	2047.22
7108	반귀금석	418,394,400	285,834,053,002	3.5702
7403	정제한구리와구리합금	68,903,859	51,657,373,625	3.2533
8426	선박의 데릭(derrick), 크레인	90,670	13,203,127,646	0.01674
8471	자동차료처리기계	147,695	352,957,338,678	0.00102
8473	부분품과 부속품	32,297	125,514,312,447	0.00062
8486	반도체보울, 웨이퍼	0	13,203,127,646	0
8542	전자집적회로	6,320	704,438,340,280	0.000021
8517	전화기	237,704	565,004,417,751	0.00102
8529	부분품	15,990	58,650,099,104	0.000664
8703	승용자동차와그밖의차 량	1,366,100	762,523,863,277	0.0043
8708	부분품과부속품	1,492,026	393,363,330,335	0.0092
8901	순항선·유람선·페리 보트	0	66,739,948,268	0

<표 3-7> 한국과 몽골의 RCA지수 분석 결과 비교

순위	HS코드	품목명	한국	몽골
1	0205	말·당나귀·노새·버새의 고기	0	347.04
2	2529	장석(長石), 백류석(白榴石), 하석	0.09109	386.85
3	2601	철광과그정광	0.0001	12.23
4	2603	동광과 그 정광	0.1582	77.03
5	2608	아연광과 그 정광	0.0768	50.33
6	2709	석유 ,역청유 (원유)	0.0000003	1.3974
7	2701	석탄과석탄으로제조한연탄·조개탄	0.000067	67.357
8	2710	석유와역청유	1.9347	0.0422
9	2902	환식탄화수소	7.533	0
10	5102	동물의부드러운털이나거친털	0.001668	2047.2
11	7108	반귀금석	0.10688	3.5702
12	7403	정제한구리와구리합금	1.0979	3.2533
13	8426	선박의테릭(derrick),크레인	0.8409	0.01674
14	8471	자동차료처리기계	0.1026	0.00102
15	8473	부분품과 부속품	3.1308	0.00062
16	8486	반도체보울, 웨이퍼	3.3150	0
17	8542	전자집적회로	3.8735	0.000021
18	8517	전화기	1.0901	0.00102
19	8529	부분품	5.9941	0.000664
20	8703	승용자동차와그밖의차량	1.8307	0.0043
21	8708	부분품과부속품	1.6650	0.0092
22	8901	순항선·유람선·페리보트	8.8443	0

2. 실증분석

<표3-5>는 2019년 세계시장에서 한-몽 10대 수출입품목 중에 22개 품목의 RCA지수를 측정한 것이다. 2019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환식탄화수소(HS2902), 부분품과 부속품(HS8473), 반도체보울, 웨이퍼(HS8486), 전자집적회로(HS8542), 부분품(HS8529), 순항선·유람선·페리보트(HS8901)분야에서는 강한 비교우위를 가지며, 석유와 역청유(HS2710), 정제한 구리와 구리합금(HS7403), 전화기(HS8517),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차량(HS8703), 부분품과 부속품(HS8708)분야에서는 약간의 비교우위를 갖는다.

그리고 장석(長石), 백류석(白榴石), 하석(HS2529), 철광과 그 정광(HS2601), 동광과 그 정광(HS2603), 아연광과 그 정광(HS2608), 석유, 역청유(원유)(HS2709), 석탄과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조개탄(HS2701),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털(HS5102)분야에서는 비교열위가 크며, 동광과 그 정광(HS2603), 반귀금석(HS7108), 선박의 데릭(derrick), 크레인(HS8426), 자동자료처리기계(HS8471)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비교열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6>몽골의 경우는 말·당나귀·노새·버새의 고기(HS0205), 장석(長石), 백류석(白榴石), 하석(HS2529), 철광과 그 정광(HS2601), 동광과 그 정광(HS2603), 아연광과 그 정광(HS2608), 석탄과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조개탄(HS2701),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털(HS5102)분야에서 강한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경쟁력이 있으며, 석유, 역청유(원유)(HS2709), 반귀금석(HS7108), 정제한 구리와 구리합금(HS7403)분야에서 약간의 비교우위를 갖는다.

또한 자동자료처리기계(HS8471), 부분품과 부속품(HS8473), 전자집적회로(HS8542), 부분품(HS8529),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차량(HS8703), 부분품과 부속품(HS8708)분야에서는 비교열위가 크며, 석유와 역청유(HS2710), 선박의 데릭(derrick), 크레인(HS8426), 전화기(HS8517)분야에서 비교열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몽골의 “양모, 가늘거나 거친 동물 털, 양 및 직물”과 부가가치제품, 캐시미어의류 등 캐시미어 제품을 수출할 가능성이 높다. 몽골은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수입 관세를 면제하면 몽골에서 수출할 수 있는 위 섬유 제품의 수출

에 가장 높은 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에서는 캐시미어 제품에 13-35%의²⁸⁾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높은 수준이며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이들제품의 수입관세가 감축되고 몽골 캐시미어 제품이 한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몽 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하면 몽골 측의 주요 희망 농업제품은 쇠고기와 양고기, 햄, 과일 주스, 피혁, 가죽으로 만든 제품 등이다. 현재 몽골의 농업제품에 대한 한국의 수입관세를 보면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관세는 22-30%, 주스 8%를 부과하고 있으며 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하면 한국 수입 관세면제 효과로 이들 제품의 수입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몽골에서 육류 제품을 주요 수출 제품으로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육류 제품을 수입금지 지역에 몽골이 포함되어 있어서 몽골 육류 제품 수입이 어려운 상황이다²⁹⁾. 따라서 한국 정부에서 몽골의 육류 제품에 대한 수입정책을 발전적이고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몽골에서의 냉동고기 수입은 어렵더라도 가공 육류제품(햄, 소시지 등)에 대한 정책을 추진한 필요가 있다고 보여준다.

28) 관세법령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29) 몽골은 「지정검역물의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7-72호, '17.8.18.)에 따라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가금육 등 육류제품은 수입이 금지되어있다.

제3절 시장별비교우위지수

1. 시장별비교우위지수 (MCA: Market comparative Advantage)

앞에 언급한 RCA 지수의 경우 전 세계에 대해서만 그 값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MCA 지수를 사용하기로 한다. MCA지수는 세계 전체가 아닌 목적 시장의 수입총액과 특정 품목의 수입액에 관한 자료만 있으면 목적시장에서의 경쟁력 측정이 가능하므로 조사 대상 품목의 양국 시장에서의 수출경쟁력 분석을 위한 도구로는 보다 더 유용한 개념이 될 것이다. MCA 지수는 RCA 지수와 비슷한 개념이나 목표 시장에서의 특정 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측정하도록 고안된 것이다³⁰⁾.

MCA 지수가 '1'이상이면 목표 시장에서의 해당 상품에 대한 경쟁력은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MCA지수는 수입국의 수입구조변화에 따른 수출국 해당 상품의 경쟁력 변화를 반영하는 지수이다.
- 시장별비교우위지수는 0보다 큰 값을 가지며 이 지수가 1보다 크면 해당 수입국 시장에서 해당수출의 상품이 타수출국 상품보다 비교우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MCA_{ij}^k = \left(\frac{M_{ij}^k}{M_{ij}} \right) / \left(\frac{M_j^k}{M_j} \right)$$

여기서는, M_{ij}^k 는 수입국 j가 수출국i로부터 수입하는 k 상품 수입액, M_{ij} 는 수입국 j가 수출국 i로부터 수입하는 전체 상품 수입액, M_j^k 는 수입국 j의 k상품 수입액, M_j 는 수입국 j의 전체 상품 수입액이다.

30) 김지용, "한국 소재산업의 미국시장 수출성과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0권 1호, 2008, p.184.

<표 3-8> 한국의 대몽골MCA지수(2019년)

(단위: 달러)

HS코드 (4 단위)	품목명	한국으로부터 수입하 는 k상품의 수입액	몽골의 k상 품 총수입액	MCA지수
0205	말·당나귀·노새·버새 의 고기	0	37,843	0
2529	장석(長石), 백류석(白 榴石), 하석	0	205	0
2601	철광과그정광	0	96,566	0
2603	동광과 그 정광	0	13,946	0
2608	아연광과 그 정광	0	0	0
2709	석유, 역청유 (원유)	0	0	0
2701	석탄과석탄으로제조 한연탄·조개탄	0	49,546,144	0
2710	석유와역청유	23,685,592	1,165,775,896	0.4122
2902	환식탄화수소	0	6,918	0
5102	동물의부드러운털이 나거친털	0	331,533	0
7108	반귀금석	0	7,104	0
7403	정제한구리와구리합 금	0	0	0
8426	선박의데릭(derrick), 크레인	185,564	10,381,445	0.3626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	559,520	41,663,342	0.2722
8473	부분품과 부속품	115,607	1,857,735	1.4288
8486	반도체보울, 웨이퍼	874	3,092	5.7353
8542	전자집적회로	3,630	190,859	0.4365
8517	전화기	2,919,279	94,847,593	0.7066
8529	부분품	61,916	2,654,923	0.5364
8703	승용자동차와그밖의 차량	9,151,833	418,739,473	0.4434
8708	부분품과부속품	7,023,469	34,254,916	4.1601
8901	순항선·유람선·페 리보트	0	0	0

<표 3-9> 몽골의 대한국MCA지수(2019년)

(단위: 달러)

HS코드 (4 단위)	품목명	몽골로부터 수입하 는 k상품의 수입액	한국의 k상품 의 총수입액	MCA지수
0205	말·당나귀·노새·버새 의 고기	0	0	0
2529	장석(長石),백류석(白 榴石),하석	356,267	28,391,464	225.64
2601	철광과그정광	140	6,952,012,387	0.00036
2603	동광과 그 정광	0	3,447,478,239	0
2608	아연광과 그 정광	0	1,684,203,879	0
2709	석유 ,역청유 (원유)	0	70,251,768,064	0
2701	석탄과석탄으로제조 한연탄·조개탄	10,659	14,093,332,771	0.01369
2710	석유와역청유	256,393	17,200,488,864	0.2699
2902	환식탄화수소	0	1,191,255,452	0
5102	동물의부드러운털이 나거친털	8,075	5,861,585	24.93
7108	반귀금석	0	887,978,304	0
7403	정제한구리와구리합 금	0	1,510,340,766	0
8426	선박의 데릭(derrick), 크레인	0	198,157,022	0
8471	자동차료처리기계	35,754	6,702,001,742	0.947
8473	부분품과 부속품	0	6,136,762,555	0
8486	반도체보울, 웨이퍼	0	9,039,329,912	0
8542	전자집적회로	61,502	35,703,236,563	0.03118
8517	전화기	470	12,852,246,122	0.00066
8529	부분품	28	4,976,604,303	0.0001
8703	승용자동차와그밖의 차량	22,150	11,111,729,336	0.0358
8708	부분품과부속품	723	3,866,562,054	0.00338
8901	순항선·유람선·페 리보트	0	1,101,655,634	0

<표 3-10> 한국과 몽골의 MCA지수의 분석 결과 비교

순위	HS코드	품목명	한국	몽골
1	0205	말·당나귀·노새·머새의 고기	0	0
2	2529	장석(長石),백류석(白榴石),하석	0	225.64
3	2601	철광과그정광	0	0.00036
4	2603	동광과 그 정광	0	0
5	2608	아연광과 그 정광	0	0
6	2709	석유 ,역청유 (원유)	0	0
7	2701	석탄과석탄으로제한연탄·조개탄	0	0.01369
8	2710	석유와역청유	0.4122	0.2699
9	2902	환식탄화수소	0	0
10	5102	동물의부드러운털이나거친털	0	24.93
11	7108	반귀금석	0	0
12	7403	정제한구리와구리합금	0	0
13	8426	선박의데릭(derrick),크레인	0.3626	0
14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	0.2722	0.947
15	8473	부분품과 부속품	1.4288	0
16	8486	반도체보울, 웨이퍼	5.7353	0
17	8542	전자집적회로	0.4365	0.03118
18	8517	전화기	0.7066	0.00066
19	8529	부분품	0.5364	0.0001
20	8703	승용자동차와그밖의차량	0.4434	0.0358
21	8708	부분품과부속품	4.1601	0.00338
22	8901	순항선·유람선·페리보트	0	0

2. 실증분석

실증분석 결과<표 3-8> 한국의 대몽골 MCA지수 분석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HS8473), 전화기(HS8517), 부분품과 부속품(HS8708)분야에서 높은 지수를 기록하여 몽골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니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석유와 역청유(HS2710), 전자집적회로(HS8542), 부분품(HS8529) 분야에서는 비교적 경쟁력이 낮았다. 그런데 선박의 데릭(derrick), 크레인(HS8426), 자동자료처리기계(HS8471),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차량(HS8703)분야에서는 비교열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수출품 자동차의 경우 현재는 몽·일 경제동반자협정³¹⁾으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지만 한·몽 EPA를 체결하면 수입 관세 감면으로 인해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동차, 기계류, 전자제품 등 제품의 대몽골 수출량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자제품은 일본 전자제품보다 운송비가 낮으며, 관세 인하 효과로 몽골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한·몽 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하면 몽골은 중국 상품에 대한 수요를 한국 상품으로 대체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표 3-9> 몽골의 대한국 MCA지수 결과를 살펴보면, 장석(長石), 백류석(白榴石), 하석(HS2529),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털(HS5102), 자동자료처리기계(HS8471) 분야에서 비교적 경쟁력이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철광과 그 정광(HS2601), 전화기(HS8517), 부분품(HS8529)분야에서 비교열위가 크며, 석탄과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조개탄(HS2701), 석유와 역청유(HS2710), 전자집적회로(HS8542), 부분품과 부속품(HS8708)분야에서 비교열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 2015년 2월에 몽골과 일본 경제협력협정(EPA)을 체결하였다. 이는 일본으로써 몽골은 15번째 국가, 몽골으로써는 일본이 첫 번째 경제 파트너십 국가가 되는 것이다.

제4장 한국과 몽골간의 무역증대 방안

제1절 한국과 몽골간 무역 발전의 문제점

한국과 몽골의 2019년 기준으로 RCA(현시비교우위)와 MCA(시장별비교우위)의 비교를 통해 글로벌시장과 양측시장에서 자국산 수출품의 비교우위 정도를 확인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주력수출품이 국제시장이나 몽골시장에서 공히 국제경쟁력을 가진 비교우위품목으로는 석유와 역청유(HS2710), 부분품과 부속품(HS8473), 전자집적회로(HS8542), 전화기(HS8517), 장석(長石),백류석(白榴石), 하석(HS2529), 승용자동차와 그밖의 차량(HS8703), 부분품과 부속품(HS8708) 등이 확인되었다. 국제시장보다 몽골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의 비교우위품목은 선박의 데릭(derrick), 크레인(HS8426), 자동자료처리기계(HS8471)로 나타났다.

한편, 몽골 수출품목은 국제시장 및 한국시장에서의 경쟁력을 RCA 및 MCA와 함께 교차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몽골의 장석(長石), 백류석(白榴石), 하석(HS2529), 석유와 역청유(HS2710), 동물의 부드러운털이나 거친털(HS5102), 자동자료처리기계(HS8471) 품목들이 한국시장에서 경쟁력이 큰 비교우위품목으로 분석이 되었다.

한국과 몽골의 현시비교우위 지수와 시장별비교우위 지수의 결과를 통해 양국간 교역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시비교우위 지수의 결과를 따르면 몽골의 말·당나귀·노새·머세의 고기(HS0205)품목 대세계 RCA지수는 절대적 비교우위가 있지만 한국으로 수출되지 못하는 점이 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몽골에서 육류 제품을 주요 수출 제품으로 개발하고 있는 바에 한국으로 수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국에서 육류 제품이 수입금지 지역에 몽골이 포함되어 있어서 몽골 육류 제품 수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는 몽골의 수출품 가축성 제품은 한국의 식품과 화장품산업에 중요한 원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품의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의 범위에서 관세를 면제할 수 있지만 한국의 위생 검역 및 한국 표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는 문제가 중요할 것이다.

둘째, 몽골의 (HS5102)(양모, 가늘거나 거친 동물 털, 안 및 식물)품목과 부가가치제품인 캐시미어 의류 등 캐시미어 제품을 수출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국에서는 캐시미어 제품에 13-35%³²⁾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몽골의 주요 수출국가들은 전 세계 수출국에 대한 평균 관세보다 몽골에 대하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몽골의 수입 관세는 평균 5%인데,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 몽골의 대외무역 시장은 이미 개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주요 수출국인 중에서 중국, 러시아와 한국 등은 여전히 몽골에 대해 비교적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셋째, 몽골의 수출 비교우위 분석결과를 보면 수출 비교우위 상품 중 광산업과 목축업의 원재료등의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몽골의 장석(長石), 백류석(白榴石), 하석(HS2529), 철광과 그 정광(HS2601), 동광과 그 정광(HS2603), 아연광과 그 정광(HS2608), 석탄과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조개탄(HS2701) 등 천연자원과 광석은 수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환식탄화수소(HS2902), 부분품과 부속품(HS8473), 반도체보울, 웨이퍼(HS8486), 전자집적회로(HS8542), 부분품(HS8529), 순항선·유람선·페리보트(HS8901)분야에서는 강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장석(長石), 백류석(白榴石), 하석(HS2529), 철광과 그 정광(HS2601), 동광과 그 정광(HS2603), 아연광과 그 정광(HS2608), 석유, 역청유(원유) (HS2709), 석탄과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조개탄(HS2701),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털(HS5102)분야에서는 비교열위가 크게 나타났다. 한국은 몽골에서 천연자원을 수입하면 주로 철도를 이용하여 러시아를 경유해 해상운송으로 한국으로 유입되는 것이다.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몽골 울라바토르역까지 배송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15일로 일정한 편인데 반해, 몽골에서 생산된 석탄과 형석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최소 15일에서 최대 25일로 일정하지 않다³³⁾. 이런 문제들로 인해 무역을 하는데 운송기간이 오래 걸리고 따라서 운송비용도 비싸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수출입 상품의 가격에

32) 관세법령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33)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몽골로 수출 할 때, 자민우드(Zamin-Uud)역에서의 환적 과정에서 컨테이너 및 물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음.

도 큰 영향을 주고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넷째, 한·몽 간 자유무역협정의 문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3년 11월에 옹흐바야르 총리 방한시, 몽골 정부는 한국정부에 대해 한국과 몽골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제안하였으며 한국정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성격상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요구하고,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전문성과 인력이 필요하므로, 현재 몽골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한국은 몽골의 제4위 주요 수출입 대상국이 되었지만 양국 간 교역은 몽골 총교역의 연평균 2.2% 불과하며 교역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섯째, 한국의 수출은 매년 마다 높은 비율로 증가하는 반면, 수입은 거의 고정 되어있어 몽골의 무역수지는 지속적 적자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몽골의 수출품중 약 90%를 광산물만 차지하고 있으며 몽골의 수출품목이 부족할 수 있다.

일곱째, 투자의 경우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그 동안 한국의 대몽골 직접투자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다양한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 한국은 몽골의 제4위 투자국이며 대몽골 투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대몽골 투자는 0.1%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몽골의 투자환경 미비, 기술인력 부족, 국내시장 협소, 비효율적인 자원이용과 정보수집의 어려움, 사회간접자본 부족, 내륙운송 곤란 등으로 아직 투자규모는 미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몽골의 투자 관련 법규가 자주 변경되고, 기존 결정이 취소되는 등 법률 준수 정도가 미흡하며, 관료의 부정부패 등이 한국의 대몽골 진출 확대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제2절 한국과 몽골간의 무역증대 방안

향후 양국 간 교역을 확대하고 교역의 질을 개선해나가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제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RCA지수의 결과를 따르면 몽골의 경우는 말·당나귀·노새·버새의 고기(HS0205), 장석(長石), 백류석(白榴石), 하석(HS2529), 철광과 그 정광(HS2601), 동광과 그 정광(HS2603), 아연광과 그 정광(HS2608), 석탄과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조개탄(HS2701),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털(HS5102)분야에서 강한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경쟁력이 있으며, 한국은 장석(長石), 백류석(白榴石), 하석(HS2529), 철광과 그 정광(HS2601), 동광과 그 정광(HS2603), 아연광과 그 정광(HS2608), 석유, 역청유(원유)(HS2709), 석탄과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조개탄(HS2701),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털(HS5102)분야에서는 비교열위가 크게 나타났다. 몽골의 수출 비교우위 분석결과를 보면 수출 비교우위 상품 중 광산업과 목축업의 원재료등의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몽골의 철광, 고기, 아연, 석탄, 코크스 석탄 등 자연자원과 광석은 수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었다. 한국은 석탄, 아연 제품 등 제품의 수요가 높다는 상황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 이유중에 한국의 사용하는 전기의 75%를 화력발전 및 원자력발전을 통해 생산하고 있는데, 그 원료인 석탄(유연탄)과 우라늄을 100%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³⁴⁾. 한국은 몽골에서 천연자원을 수입하면 수송비용이 높기 때문에 이들 자원을 가공하는 협력 공장 등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수요를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저렴하고 편리한 물류 운송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다. 몽골에서 가장 핵심적인 물류 운송수단은 철도이다. 특히 광물을 비롯한 원자재 수출이 약 90%를 차지하는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전통적으로 철도의 운송 수단이 매우 높았다. 몽골에서 수출되는 석탄, 구리등 광물의 대부분은 주로 철도를 이용하여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극소량이 러시아, 인도, 한국 순으로 수출되고 있다. 한국으로 수입되고 있는 석탄은 러시아를 경유해 해상운송을 통해 한국으로 유입되는 것이다. 내륙국인 몽골의 철도는 유럽, 러시아 및 아시아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임

34) 투데이에너지, “광물자원 확보의 중요성”, 2010.6.17.

과 동시에 대외교역을 위한 기본 인프라로 작용해 왔다. 한국과 몽골 간 교역도 항공운송을 제외하고는 몽골 역내는 물론 역외에서도 중국이나 러시아의 항구까지 주로 철도가 이용되고 있다. 철도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러시아와 중국을 경유해야 하며 이때 러시아와 중국 국경에서 지체되면 비용과 시간적인 손실을 가져온다. 뿐만 아니라, 교통·물류 부문에 잔존하고 있는 독점구조로 인해 철도의 물류서비스 가격은 높은 반면에 낮은 서비스 질로 인해 수출품의 손실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한·몽골 간 교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철도와 도로의 확충과 개발을 통한 국제운송만을 확보하는데 있다. 또는 국경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

셋째, 한국은 몽골의 자원개발 참여와 함께 반드시 몽골의 전통산업인 식품가공업, 섬유산업, 농업개발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시비교우위지수의 결과를 따르며 몽골의 경우는 말·당나귀·노새·버새의 고기(HS0205)품목이 대세계 비교적 경쟁력이 크게 나타났다. 육류 생산이 많은 몽골이 한국의 우수한 가공 및 포장기술과 냉장보관 기술을 접목한다면, 식품가공업은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 산업으로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우수한 품질의 캐시미어를 생산하는 몽골의 섬유산업은 수출상품 구성에서 광물자원 다음으로 비중이 높는데, 디자인과 색상 등에서 세련된 기술이 보완된다면 국제적으로 훨씬 높은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지리적 위치로 가까운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몽골 정부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외에 미국, 한국, 일본 등의 국가들을 지리적, 역사적, 경제 및 정치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전략적 협력 대상국으로 지정하였다. 몽골 정부는 위에 언급한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FTA를 체결함으로써 관세를 철폐하여 수출량 증가, 외국인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인적개발 및 빈곤 퇴치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교역 대상국이며 요즘들어 몽골의 발전모델이 된 국가이다. 한국과 몽골은 예부터 경제, 사회, 문화 교류를 맺었으며 양국 간의 관계는 오늘날에도 더 활발해졌으며 앞으로도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수 있는 잠재성이 풍부하다. 몽골은 한국과 FTA 체결을 통해 선진국의 노동시장 개방으로 인한 노동 이주 및 기술 전수를 원하고 있다. 몽골은

한국에 비하면 경제 규모가 작은 규모지만 세계 자원부국이라는 점에서 한국과 몽골 FTA를 체결하면 얻을 수 있는게 많을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몽골과의 FTA를 체결하는 것이 상호 보완적이고 이익이 많으며 위험성이 낮을 것이다. 몽골과 한국은 국제무역 수준과 자유무역협정의 경험에서는 차이점이 많은 국가이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FTA 경험을 가지고 있고, 현재에도 여러 나라와 동시 다발적으로 FTA를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몽골의 경우 몽·일 경제동반자협정(EPA)³⁵⁾만 체결한 경험이 있고, 체결 시기도 얼마 되지 않아 자유무역협정 경험이 부족한 국가이다. 한·몽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에 몽·일 경제동반자협정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예측할 수 있다. 몽·일 EPA이후 양국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에 16.8%, 2017년에 9.7%, 2018년 55.4% 각각 증가하였다. 몽골은 수출 경쟁력이 약하며 수출 품목이 부족하지만 몽·일 EPA 체결 이후 자원 수출과 캐시미어 수출, 식품 및 기타 신개발 제품 수출이³⁶⁾ 증가하였다. 또한 2015년 이후 주요 투자 국가들의 대몽골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일본의 대몽골투자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것은 경제동반자협정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³⁷⁾. 따라서 최근 둔화 상태에 있는 몽골-한국간 교역과 한국의 대몽골 외국인투자를 증대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한국과 몽골의 교역구조는 상호 보완적이거나 향후 수출품목을 발굴하여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의 총교역에서 차지하는 몽골의 비중이 매우 낮으며, 한국은 주로 자동차, 기계류를 수출하고 광물자원을 수입하는 등 특정 물품에만 치우쳐 있는 무역구조가 있다. 현시 비교우위지수를 이용한 연구 결과를 통해 서로

35) 세계 대부분 국가들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체결하고 있는데 일본은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하고 있다. 일본의 국제무역 기관에 의하면 EPA는 FTA를더욱 발전시킨 시스템, 즉 FTA보다 경제 협력을 한층 강화한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FTA 협정은 상품과 서비스 무역의 자유이동을 위해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둔다면 EPA는 유형 상품을 넘어 협정 체결국 간에 폭넓은 범위의 경제 협력에 초점을 맞춘다. EPA는 기존 협정에서 다룰 수 없는 투자와 인적 자원의 이동, 정부 조달, 경쟁 정책, 중소기업의 협력, 비즈니스 환경의 정비, 국가 간 협력 등을 더욱 더 확대시킨다. 또한 중소기업의 육성과 농업기술의 지원이라는 협력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상대국가의 기대에도 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을 진행했던 경험으로는 강국이며 인도와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도 체결한 바 있다.

36) 소량으로 유제품, 꿀, 애완동물 사료, 비타민 나무의 주스와 연구, 펠트 제품, 냉동 및 말린 말고기, 화장품과 미용 제품 등을 수출하고 있다.

37) G. Munkhnasan (2019) 몽골과 일본의 경제동반자협정.

거래할 기회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양국이 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할 경우 몽골의 농업, 광업, 섬유업 제품의 수출, 한국의 자동차, 승용차, 전기 및 기계, 장비 및 부품, 식품 등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할 경우 우선 현시 비교우위지수가 높은 상품들로부터 교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한·몽 간 자유무역협정은 비교적 효율적인 특정상품으로 중시되어 생산 및 교역을 넓히고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경제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관계에 유리한 점이 많다.

제5장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몽골간의 무역협력이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몽골의 무역환경 및 수출입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양국간의 수출경쟁력을 분석하여 그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현시비교우위 지수와 시장별비교우위 지수를 도입하여 양국의 품목별 무역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국제시장이나 몽골시장에서 공통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가진 비교우위품목은 석유와 역청유(HS2710), 부분품과 부속품(HS8473), 전자집적회로(HS8542), 전화기(HS8517), 장석(長石),백류석(白榴石),하석(HS2529),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HS8703), 부분품과 부속품(HS8708)이며, 국제시장보다 몽골시장에서 경쟁력이 더 큰 비교우위품목은 선박의 데릭(derrick), 크레인(HS8426), 자동자료처리기계(HS8471)로 나타났다. 몽골의 경우 장석(長石), 백류석(白榴石), 하석(HS2529), 석유와 역청유(HS2710), 동물의 부드러운털이나 거친털(HS5102), 자동자료처리기계(HS8471) 품목들이 한국시장에서 경쟁력이 큰 비교우위품목으로 분석 되었다. 따라서 현시 비교우위 분석 결과를 보면 양국 서로 거래할 기회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근 몽골 정부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정책을 보면 몽·일 경제동반자협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몽골의 기업이 일본시장에 진출하면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다. 현재 몽골은 한·몽 경제동반자협정 공동연구를 완료하고,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며 유라시아 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EU)³⁸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지난 10월 30일에 몽골은 아시아 태평양무역협정(APTA·Asia Pacific Trade Agreement)³⁹의 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몽골의 APTA 가입은 2001년 중국의 APTA 가입(6번째) 이후 19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국의 기재부는 향후 APTA를 활용하여 몽골과의 교역 확대로 교역 시장이 다변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몽골 수교 30주년이 되는 2020년 몽골의 APTA에 가입이 확정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분석

38) 현재 회원 국가는 5개 국가: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39) 기존 APTA 회원국은 한국·중국·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 등 6개국이었다.

이다. 몽골의 APTA 가입을 계기로 양국은 내년부터 상호 특혜를 부여하는 첫 번째 무역협정을 시작하게 된다. 특히 몽골은 유일하게 일본과 EPA를 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APTA를 통해 한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정 적용에 따라 한국이 대몽골에 수출되는 전체 품목의 28% 수준인 2797개 품목의 관세가 평균 33.4% 내려간다. 주요 품목들을 보면 건설중장비가 5%에서 4.5%로, 10인 이상 수송용 디젤자동차는 5%에서 3.5%로, 수산물 통조림은 5%에서 3.5% 등으로 각각 낮아진다⁴⁰).

몽골산 제품의 관세도 낮아진다. 전체 몽골산 수입 품목의 6.5%인 366개가 평균 24.2% 관세 인하를 적용받게 되면서 편직제의류가 13%에서 9.1%로, 직물제의류가 13%에서 8.1%로, 비금속광물 형식이 2%에서 1%로 각각 인하된다. 이는 몽골과 한국이 서로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첫 번째 사례이다.

한·몽 간 자유무역협정은 비교적 효율적인 특정상품으로 중심되어 생산 및 교역을 넓히고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경제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 관계에 유리한 점이 많다. 현시비교우위지수와 시장별비교우위지수를 이용한 연구 결과 몽골의 대 한국 수출품목으로 대부분 광산업, 농·목축업 등 1차 상품들, 수입품목은 자동차, 건설중장비, 의류 등 상품들로 도출되었다. 내년부터 양국 간 교역할때 우선 현시비교우위지수가 높은 상품들로부터 교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양국 간 운송개선과 운송비절감 정책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내년부터 한국은 몽골과의 수출입에서 일부 관세가 내려가고 가격인하효과로 교역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몽골의 경우 향후 수출할 신상품개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제품다양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40) 관세협력과장(2020.10.30)

참고문헌

1. 한국문헌

- 김홍진(2006), “한·몽 경제협력 증진에 대한 고찰: FTA 가능성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0권 제2호: 456~517몽크나산.
- 김세영 양경희(2010), “한·몽 FTA 가능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한국동북아연구소.
- 둘마 바다르흐(2012), “몽골의 무역환경 분석을 통한 한국과 몽골의 무역협력 증대방안”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의섭(2017), 「한국 몽골 EPA 시대의 도래와 경제협력 과제:내륙국 제약의 극복을 위한 경험의 패러다임 쉬프트」, 2017 KIEP 신흥지역연구 통합학술회의 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앵흐랭(2018), “몽골 외국인투자 환경 분석 및 한국기업의 진출 방안”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졸보(2020), “외국인 직접투자 몽골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Davaasambu Enkhjargal(2011), “한·몽골 FTA의 실행가능성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Gotov Tuvshinjargal(2018), “몽골 주요 국가들의 국제 교역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Munkhnasan(2011), 몽골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연구: 한·몽 FTA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몽골 전문가풀 세미나.
- Munkhnasan(2019), 몽골과 일본의 경제동반자협정. 「투르크 알타이 경제권」.
- Nanjid Altanzay(2016), “한국의 대몽골 직접투자 현황 및 몽골의 무역 발전에 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영미문헌

Balassa, B. (1965), Trade Liberalization and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TheManchester School.

Helmets, Christan(2006), Options for Mongolia for the Formation of Bilateral Free TradeAgreements, Options in Merchandise Trade: An Overview, Ministry of Industry andTrade, Ulaanbaatar, Mongoli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Mongolia(2019), 『Mongolian Statistic yearbook 2019 ,Ulaanbaatar press,p.260.

Roberta Piermartini and Robert(2005), The Demystifying Modelling Methods for Trade Policy, No 10, World Trade Organization, Geneva, Switzerland.

Shim Ui Sup, (2006), "Thinking about Mon-Korea FTA", Mongolica: An International Annualof Mongol Studie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ongol Studies, ISSN 1024-3143, Vol.17(38), 269-284.

World Trade Organization (2019), World Tariff Profiles,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The International Trade Centre.Switzerland.

3. 몽골문헌

Батнасан, Н. ба бусад (2012) Худалдаа гол түнш орнуудтай худалдааны хэлэлцээр байгуулах боломж эрсдэл.[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와 자유무역협정 체결 가능성과 위험성].

Хатанбаатар, Р. **бусад** (2014) Монгол улс, БНХАУ-ын хооронд чөлөөт худалдааны хэлэлцээрийг тодорхой бараагаар байгуулах боломж.УИХ. Бодлогын судалгаа СТ-14/101. [몽골과 중국 FTA를특정제품에만 체결할 가능성].

Отгонсай хан, Н. ба бусад (2015) БНСУ ба Монгол улсын хооронд чөлөөт худалдааны хэлэлцээр байгуулах боломжийн тухай шинжилгээ. Зүүн хойд азийн эрин үе ба монголын эдийн засаг. Сөүл.p.160-171 [한·몽 FTA 가능성에 대한 실증분석].

Монгол улсын үндэсний статистикийн хороо (2019), Монгол улс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эмхэтгэл 2018.p.425-427 [몽골국통계청(2019), 몽골 통계연보 2018].

4. 웹 사이트 자료

몽골 통계청: www.1212.mn

몽골 관세청: <https://www.customs.gov.mn/>

몽골 중앙은행: www.mongolbank.mn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관세법령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

한국수출입은행: <https://www.koreaexim.go.kr/>

자유무역협회: www.fta.go.kr

UN 세계 무역량 통계정보: <https://comtrade.un.org/>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s://news.kotra.or.kr/>

ABSTRACT

A Study on Trade expansion measures between Korea and Mongolia

ENKH AMGALAN KHALIUN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ee-cheol Kim

Foreign trade, economic cooperation and cultural exchanges, and free movement of information among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the main forces that promote globalization, a characteristic of the modern era. It can be seen as a way to develop the global economy that countries are strengthening more efficient and stable cooperative relations through various methods, including more active economic ties, integrating them into global and regional economic blocks, and establishing new forms of trade negotiations. Therefore, with the development of globalization and economic globalization, which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21st century, global competition among countries around the world is intensifying. In this unprecedented economic order, one way that developing countries can narrow the distance from advanced economies is to improve their economic power by strengthening regional economic links, and through this, it is possible to correct the irrational global economic order.

Mongolia has successfully crossed the crisis period at the beginning of the economic system transformation and has gradually shown a relatively stable economic growth. Foreig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are continuously increasing today. Participation in economic blockage in the world and each

region, cooperation between middle and advanced countries. Is becoming more important, and the need for it is growing.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deepen into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increase foreign direct investment, or develop Mongolia's abundant underground resources to create the basis for industrial development. In order to develop underground resources, it is necessary to cooperate with countries with high technology that can efficiently develop them, taking into account the circumstances of the partner countries.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Mongolia is centered on relatively efficient specific products, so expanding and developing production and trade has many advantages not only for the national economy but also for economic coopera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using the current comparative advantage index of Balasa and the comparative advantage index by market, most of Mongolia's exports to Korea were derived from primary products such as mining, agriculture and livestock, and imported goods such as automobiles, heavy construction equipment, and clothing. When trad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starting next year, it may be desirable to expand trade from products with a high current comparative advantage.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policy to improve transportation and reduce transportation costs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important in the future. From next year, it is believed that Korea can expect some tariffs to go down on imports and exports with Mongolia and increase trade due to the effect of price cuts. Therefore, in the case of Mongolia, it may be necessary to actively implement a policy for developing new products to be exported in the future and establish a product diversification strategy.